

인천광역시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기반인력 양성 정 책 현황 및 발전방안

A study on current community organizers training policy and development direction for Improving effectiveness of participatory urban regeneration projects in Incheon

윤 혜 영

연구진

연구책임

- 윤혜영 / 도시기반연구실 부연구위원

연구원

- 정민선 / 도시기반연구실 초빙연구원
-

요약 및 정책건의

1. 연구목적

- 도시 쇠퇴에 대응하기 위한 재개발, 재건축 중심의 기성시가지 정비사업의 실시는 물리적 환경 개선에는 일부 성과가 있었으나 공동체 붕괴, 사회양극화현상 등 여러 사회문제를 야기하였음
- 이에 대한 대응으로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이 재정비 되었으며, 거주자 중심의 상향식(Bottom-up) 개발방식, 사회경제적 측면을 포함한 통합적 환경 개선을 중요시 하게 됨
- 또한 지역 내 주민의 활동이 도시재생의 중요한 관점이 되면서 지역 기반 공동체의 활성화, 지역에 대한 주민의 관심 증대, 공동체 및 도시재생활동을 이해하고 추진할 수 있는 주체 등 인력의 필요성이 확대되었으며, 현재 많은 지역에서 주민 도시재생대학, 마을리더 양성사업, 마을활동가 육성사업 등 민간의 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 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음
- 인천광역시에서도 주민들의 자발적인 소통과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마을공동체 형성과 활성화와 저층주거 관리사업 등 도시재생에 관련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인력 양성에 있어서는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지원이 개별적, 한시적으로 실시되고 있어 마을 정책에 실질적으로 참여, 주민과 소통하며 추진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력 양성에는 어려움이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도시재생 정책 및 역량강화 지원 및 시 내에서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마을활동가 등 현황을 파악하고, 도시재생 활동에 기반이 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운용 체계 사례를 분석하여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력 양성에 관한 시사를 도출하고자 함

2. 연구결과 요약

- 본 연구에서는 인천광역시의 도시재생 및 공동체 활성화 정책 현황, 도시재생 주체로 활동할 수 있는 인력 양성사업 현황과 관련된 자료를 조사 분석하였으며, 인천광역시 내의 마을활동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과제를 도출하고 국내외 마을 관련 제도 사례분석을 통해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인천광역시의 경우 2013년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인천광역시 내의 마을공동체를 지원하는 등 참여형 도시재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
- 그러나 참여형 도시재생 사업이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에 있는 관계로 시 및 주민의 추진 경험이 부족하며, 특히 2016년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이후 시군구에서 수립할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내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및 추진 등 주민의 참여 유도 및 적극적인 활동이 요구되는 상황에 있음
- 인천광역시 내 민간의 역량강화 지원에 있어서는 부평구, 중구, 동구, 강화군 등 군구가 주도하여 주민대학을 개최한 바 있으며 인천광역시에서도 도시재생대학 등을 통해 주민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음
- 한편 주민 및 주민조직의 사업계획 및 활동 지원, 갈등관리, 민관 커뮤니케이션 등 주민마을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전문적인 인력의 양성에 있어서는 교육지원에 대한 제도적 기반은 마련하였으나 실제로 양성 교육이 행해지고 있지 않으며, 도시재생계획수립에서의 주민과의 소통에 있어서는 기존 주민조직의 활용, 자발적 마을활동가 및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역할이 큰 것으로 파악됨
- 인천광역시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을활동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류작성 등 행정적 지원의 부족과 생업활동과의 조정 등이 활동

상의 어려움으로 나타났으며 마을활동가로 활동이 가능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거점 공간 등이 요구되었음

- 인천광역시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을활동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류작성 등 행정적 지원의 부족과 생업활동과의 조정 등이 활동상의 어려움으로 나타났으며 마을활동가로 활동이 가능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거점 공간 등이 요구되었음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등 국내 사례의 경우 마을활동가 양성 프로그램을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과 다른 위계에서 추진하여 도시재생 전문 인력의 양성과 사회적 과제를 종합적으로 풀어나가고자 시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일본, 영국 등 해외 사례에서는 지역에서의 여러 주체를 연계시키고, 활동가의 학습과 인증에 있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있음

3. 발전방안 제언

- 인천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은 공동체 활동과 도시재생 사업을 실제 실시할 수 있는 주민 양성을 위하여 주민자치와 도시설계 관점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교육 수료 후 후속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지역에 대한 관심을 확장하고 관심도에 따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보다 전문적인 지원역할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 사업 추진 관점과 함께 실제 사업 계획 수립부터 사업 실시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과제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하며, 또한 커리큘럼 수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현안에 대해 공유하고 대처할 수 있는 보수 개념의 추가 교육지원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 일정 정도의 커리큘럼을 이수한 후 이를 인정하는 증명체계(인증체계) 시스템을 통해 주민역량강화 교육 이후 후속교육으로서의 활동가 양성 프로

그램을 이수한 경우의 증명체계(인증체계) 및 이수자 누적을 통한 활동가 풀 구축을 통해 도시재생 기반을 확장할 수 있음. 또한 활동가 간,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국내외 사례를 통해 여러 지자체에서 마을활동가의 중간역할, 소통역할에 대해 일정정도의 보수를 주거나 혜택을 주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음. 인천광역시의 경우 소정의 보수 또는 생활 부문의 인센티브 등을 지원하거나, 중앙정부 및 부처에서 지원하는 사회적 일자리와 연계하여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일본과 영국의 사례에서 전문가가 행정과 지역 내 대학, 기업, 시민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해 교육, 양성되어 다시 지역의 일에 투입되는 순환체계를 알 수 있음. 인천광역시에서 양성되는 전문인력의 활용에 대한 지역 내의 수요를 취합하고 증폭시킬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목 차 -

제1장 서론	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1. 연구의 배경	3
2. 연구의 목적	4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1. 연구의 범위	6
2. 연구의 방법	6
 제2장 주민참여형 도시재생과 기반인력에 관한 이해	11
제1절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기반인력 양성의 개요	11
1. 국내 도시재생 제도 및 정책에서의 주민참여	11
2. 주민참여형 도시재생과 기반인력 양성의 흐름	16
제2절 선행연구 검토	24
1. 기존 연구 동향	24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1
 제3장 도시재생 기반인력 육성 및 지원 사례 분석	35
제1절 국내사례	35
1. 서울특별시	35
2. 부산광역시	45
제2절 국외사례	51
1. 일본 기후현	51
2. 영국	56
제3절 소결	62

제4장 인천광역시 참여형 도시재생 정책 동향 및 인력 양성 현황분석	67
제1절 인천광역시 주민참여 도시재생 정책 추진 현황	67
1. 인천광역시 도시재생 추진개요	67
2. 도시재생 기반인력 및 주민역량강화 지원	80
제2절 인천광역시 마을활동가 활동 현황 및 의식 조사 특성	90
1. 조사 개요	90
2. 분석 결과	91
제3절 소결	103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07
제1절 연구의 종합	107
제2절 정책제언	109
〔참고문헌〕	113
〔부 록〕	119

- 표 목 차 -

<표 2-1> 2000년 이후 주요 주민 참여형 도시 재생 제도 및 정책	13
<표 2-1> 2000년 이후 주요 주민 참여형 도시 재생 제도 및 정책	13
<표 2-2> 2014년도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중 활동가 관련	15
<표 2-3> 협력적 마을만들기를 목적으로 하는 주민교육 사례	16
<표 2-4> 2008년 도시대학 운영목표	17
<표 2-5> 도시대학 운영 현황	17
<표 2-6> 진안군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기본조례의 마을간사 제도	19
<표 2-7> 수원시 좋은 마을만들기 조례의 마을계획사 제도	19
<표 2-8> 마을활동가의 범주	23
<표 2-9> 마을만들기의 지속성과 주민역량 지원에 관한 연구	26
<표 2-10> 전문 활동인력의 필요성 및 양성에 관한 선행연구	28
<표 2-11> 마을활동의 인증(검정)체계에 관한 선행연구	30
<표 3-1>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내 마을활동가 양성 계획	35
<표 3-2>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사업내용 중 전문인력 양성	36
<표 3-3> 2015년 마을지원활동가 교육계획 필수과정	38
<표 3-4> 2015년 마을지원활동가 강사과정	39
<표 3-5> 지역재생활동가 2015년 상반기 기초·실습교육 프로그램	43
<표 3-6> 지역재생활동가 전문 교육 커리큘럼	44
<표 3-7> 부산광역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사업내용 중 전문인력 양성	46
<표 3-8> 단계별 인증시스템 내용	47
<표 3-9> 부산광역시 마을활동가 육성 커리큘럼	48
<표 3-10> 인증시스템 혜택	49
<표 3-11> NPO 커뮤니티론의 구성(2014년 상반기)	53
<표 3-12> 2014년도 기후현 커뮤니티진단사 자격인정 시험의 구성	53
<표 3-13> 2014년 커뮤니티 진단사 활동 예시	55

<표 3-14> 지역주권법 시행령 일부 내용	58
<표 3-15> Community Organisers 제도	61
<표 4-1>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주요 내용	67
<표 4-2> 공동체 사업 지원 분야	70
<표 4-3>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사업추진실적	71
<표 4-4> 인천광역시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추진 경과	73
<표 4-5> 전략계획 수립과정에서의 주민의견 수렴	75
<표 4-6>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조례 현황	78
<표 4-7> 2008~2009 우리동네 주민자치 대학 커리큘럼	80
<표 4-8> 2010 인천주민자치대학 및 2010 인천권 도시대학 커리큘럼	81
<표 4-9> 인천 중구와 함께하는 2013 수도권 도시재생대학 커리큘럼	83
<표 4-10> 강화군 도시재생대학 커리큘럼(2015)	84
<표 4-11> 제1기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대학(2015)	84
<표 4-12> 주민자치인문대학 프로그램	87
<표 4-13>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 중 전문인력 지원사항	89
<표 4-14> 설문조사의 개요	90
<표 4-15> 응답자의 연령대 및 성별 분포	91
<표 4-16> 현재 거주지역 거주기간 및 활동지역 활동기간	92
<표 4-17>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	94
<표 4-18> 마을활동 진행상의 어려움	94
<표 4-19> 경제활동여부	94
<표 4-20> 정책 및 제도 내 참여 형태	96
<표 4-21> 정책 및 제도기반 활동상의 어려움	97
<표 4-22> 참여 경험에 없는 이유	98
<표 4-23> 지원프로그램에의 참여	99
<표 4-24> 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주체	99
<표 4-25> 활동 지원의 형태	100

<표 4-26> 지원체계 구축 시 필요한 지원 형태	100
<표 4-27> 지원체계 및 인증체계 필요성	101

- 그림 목 차 -

<그림 1-1> 연구의 흐름	7
<그림 2-1> 주민참여형 도시계획의 기원	12
<그림 2-2> 도시정비 패러다임의 변화	14
<그림 2-3> 안산시 주민대학	16
<그림 2-4> 수원시 마을아카데미	16
<그림 5-5> 마을만들기와 도시재생의 차이	21
<그림 3-1>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행정위계	36
<그림 3-2>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목표	37
<그림 3-3>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사업 내 주체별 역할	38
<그림 3-4> 지역재생 활동가 교육 운영 관련 행정체계 및 역할	41
<그림 3-5> 지역재생활동가 양성과정 안내 포스터(좌) 및 교육과정 (우)	42
<그림 3-6> 서울특별시 마을실천대학 포스터	44
<그림 3-7> 부산광역시 마을활동가 양성 프로그램	46
<그림 3-8> 커뮤니티 오거나이저 매핑	56
<그림 3-9> Locality 관계도	57
<그림 3-10> Community Organisers 관계도	59
<그림 3-11> 고용자(employer) 리스트	59
<그림 4-1>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원칙	68
<그림 4-2> 5대 마을 공동체 전략	69
<그림 4-3> 공모사업 유형별 분류	71
<그림 4-4>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도입	72
<그림 4-5>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위계	74
<그림 4-6>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과정	76

<그림 4-7>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조직구성(안)	76
<그림 4-8>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조례 현황	77
<그림 4-9> 통두레 사업	78
<그림 4-10> 인천광역시 주민참여 도시재생 정책 추진 현황	79
<그림 4-11> 인천광역시 주민역량강화 관련 프로그램(2008-2015)	85
<그림 4-12> 마을활동 전문인력 및 주민역량강화 지원	86
<그림 4-13> 주민자치인문대학 안내포스터	88
<그림 4-14> 응답자 거주지역 및 활동지역 분포	91
<그림 4-15> 마을활동가 활동분야	93
<그림 4-16> 정책 및 제도 참여활동 기간	96
<그림 4-17> 지원체계 및 인증체계 참여 의향	101



인천광역시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기반인력 양성 정책 현황 및 발전방안

A study on current community organizers training policy and development
direction for Improving effectiveness of participatory urban regeneration
projects in Incheon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도시 쇠퇴에 대응하기 위한 ‘이전의 도시재생’의 관점인 재개발, 재건축 중심의 기성시가지 정비사업의 실시는 주택 중심의 물리적 환경 개선에는 일부 성과가 있었으나 공동체 붕괴, 사회양극현상 등 여러 사회문제를 발생·가속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러한 과제의 인식에서 2000년 이후의 도시재생에 있어서는 거주자 중심의 상향식(Bottom-up) 개발방식, 사회경제적 측면을 포함한 통합적 환경 개선으로의 관점의 전환이 가속되고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에 있어서도 소규모, 지역 기반, 주민 공동체를 주요 참여 주체로 하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으며, 주민의 자발성과 지역공동체의 참여를 도시재생 지속가능성의 필요, 필수 요인으로 인식하는 추세에 있다.

지역 내 주체의 활동이 도시재생의 중요한 관점이 되면서 지역 기반 공동체의 활성화, 지역에 대한 주민의 관심 증대, 마을에서 활동하는 인력의 양성 등 ‘마을인력’의 필요성이 확대되었으며, 현재 많은 지역에서 주민 도시재생대학, 마을리더 양성사업, 마을활동가 육성사업 등 민간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과 학습 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한편 도시재생정책의 실시에 따라 민관(民官)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는 전문성 있는 기반인력으로서의 ‘마을활동가’는 그 명칭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으며, 풀뿌리활동가, 마을조직가, 지역전문가, 마을전문인력, 주민운동가, 지역활동가 등 다양한 유사명이 존재한다. 마을활동가의 영역에는 주민 리더에서 학계 전문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장소를 기반으로 하여

마을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다른 주민의 마을활동을 돕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민간의 개인, 조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기존의 정치사회적 인식에서 나타나는 시민운동의 형태와 차별성을 가진다.

공공의 주민역량강화사업,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의 실시에도 있어 마을활동가는 마을상담, 마을강사, 마을컨설턴트, 마을기업 인큐베이터, 커뮤니티전문가 등 주민의 역량강화와 공동체 활성화의 매개자,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실제 도시재생사업의 실시에도 있어 이러한 역할자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등 국내 지자체에서도 현재 전문적인 마을 활동 인력으로서 마을활동가의 육성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인천광역시에서도 주민들의 자발적인 소통과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마을공동체 형성과 활성화에 관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 이해도의 제고와 기반인력 역량 강화 등의 측면에 있어서는 도시재생대학 등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지원이 개별적, 한시적으로 실시되고 있어 마을 정책에 실질적으로 참여, 주민과 소통하며 추진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력 양성에는 어려움이 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1. 국내 도시정비, 도시재생 제도 및 정책의 변화 동향과 마을활동인력 양성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2. 국내·외 선행 제도 및 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마을 활동에 기반이 되는 전문인력의 육성 지원에 있어서의 지원형태, 육성 과정 및 내용, 활동 보상, 피드백 등 운용 체계를 분석하며
3. 인천광역시의 도시·마을정책 현황 및 도시재생과 마을정책 추진에서 파생되는 활동 기반인력 양성의 진행과정 등 인천광역시 내에서 활동하는 마을활동가에 관련한 현황을 파악하여 다각도의 과제 도출을 통해
4.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반 인력 양성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수행을 통해 얻어진 내용은 향후 마을정책을 수행할 전문 인력으로
서의 마을활동가의 역할에 대한 인식 제고를 도모하고 향후 마을활동가 지원 정책
수립 시 기초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본 연구는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제도 및 정책의 주요 현황 분석에 있어서 인천광역시 전역을 그 공간적 범위로 설정한다. 선행 사례 분석의 대상에 있어서는 국내외 사례분석을 병행하는 것으로 한다.

2) 내용적 범위

본 연구는 기존의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도시재생 관련 정책의 내용으로서의 마을 전문 인력양성과 주민역량강화 사업을 조사 분석하고, 인천광역시에 서 활동하고 있는 마을활동가의 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국내제도, 정책동향 및 사례연구에 있어서는 국내외 마을활동가 육성 관련 지원제도 및 정책 조사를 병행하는 것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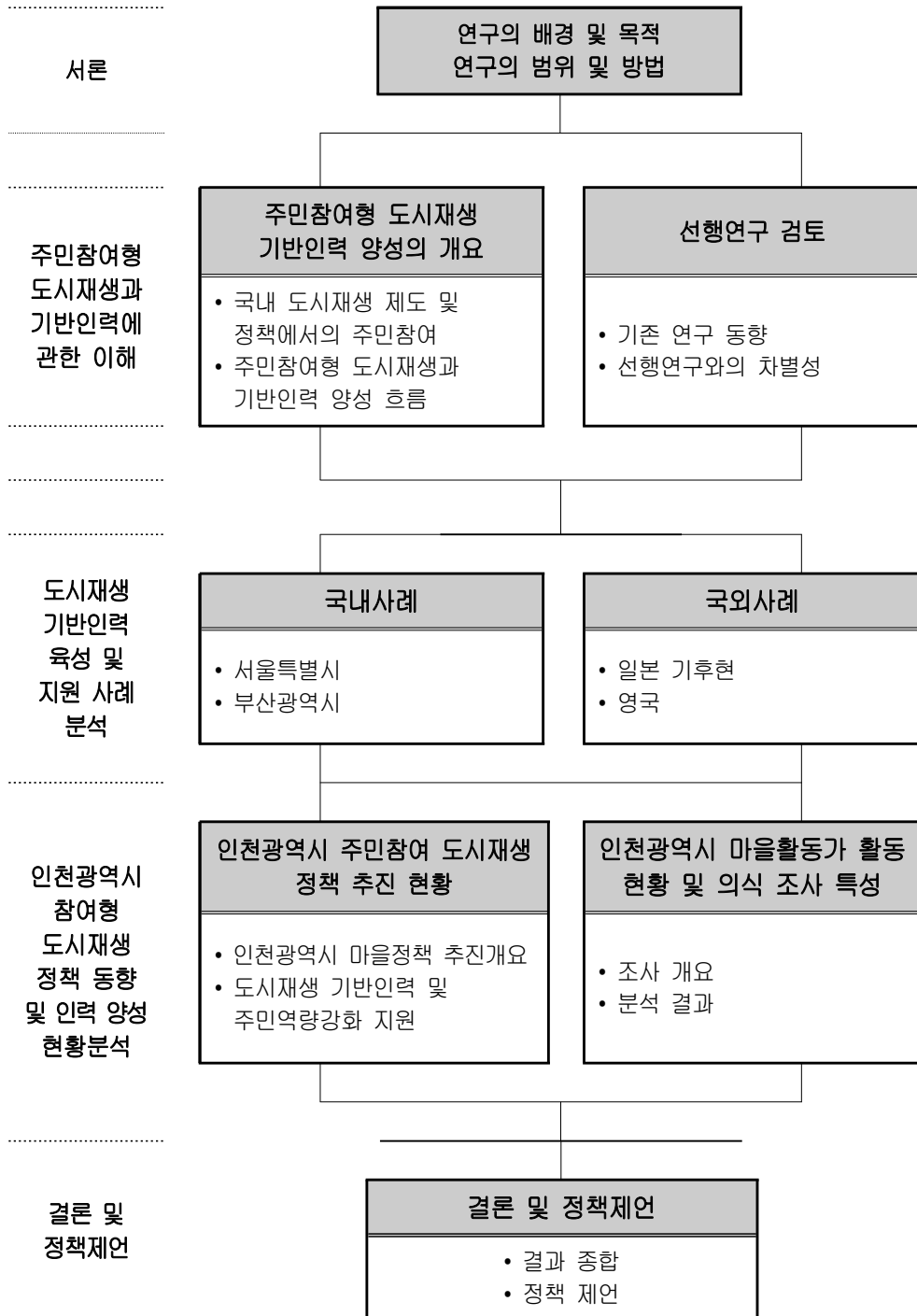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활용한다.

첫째, 문헌연구로 국내 마을 관련 제도 및 정책 동향, 인천광역시 주민참여를 통한 도시재생,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 현황 분석 및 주민역량강화, 마을인력양성사업 현황에 관한 자료를 수집 분석한다.

둘째, 인천광역시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을활동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인터뷰 등을 통해 활동 현황과 과제 등을 구체적으로 도출한다.

셋째, 국내외 지역의 도시재생 전문 인력양성 현황 및 지원 제도 사례를 대상으로 문헌, 관계자 인터뷰 등을 통해 내용을 파악하고 인천광역시에 적용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그림 1-1> 연구의 흐름



인천광역시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기반인력 양성 정책 현황 및 발전방안

A study on current community organizers training policy and development
direction for Improving effectiveness of participatory urban regeneration
projects in Incheon

제2장

주민참여형 도시재생과 기반인력에 관한 이해

제1절 주민참여형 도시재생과 기반인력의 개요

제2절 선행연구 검토

제2장 주민참여형 도시재생과 기반인력에 관한 이해

제1절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기반인력 양성의 개요

1. 국내 도시재생 제도 및 정책에서의 주민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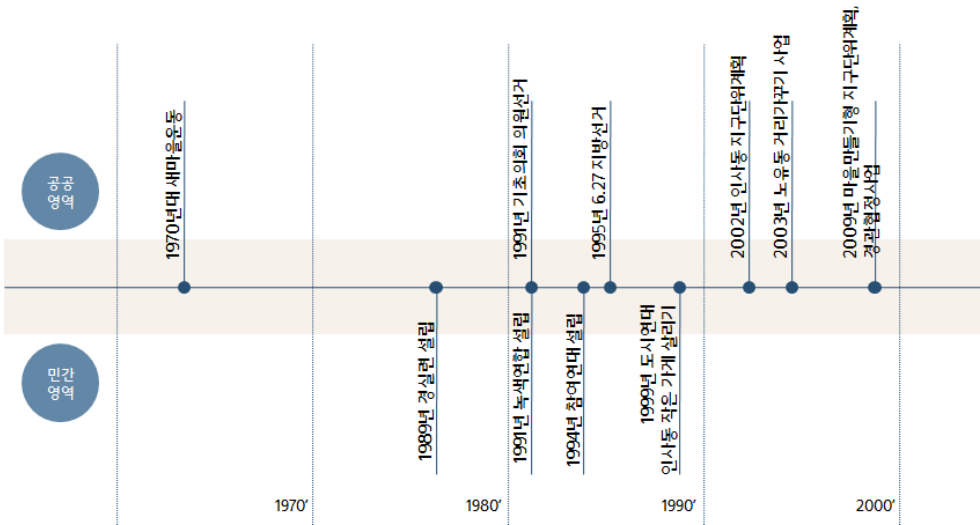
기존 우리나라 도심지 쇠퇴에 대해 시행되었던 도시정비방식은 민간사업자가 실시하는 전면철거 후 재개발의 사업 형태가 주를 이루어 왔다. 이러한 사업 방식은 지역의 물리적 환경 개선에는 성과가 있었지만 기존 주민의 생활 안정성 저해, 원주민 재정착의 어려움, 수익성 위주의 과도 개발로 인한 재(再)슬럼화 발생, 기존 지역 커뮤니티의 와해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한편 2000년대 이후에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사업성이 불투명해지면서 계획되었던 민간 주도 재정비사업이 지연, 취소되는 등의 한계도 나타나면서 공공의 역할이 더욱 부각되었다.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은 기존 사업 결과에 대한 반성과 이에 관한 적극적 대안의 측면에서 나타났으며, 실천 방향으로서 거주자 중심, 지역공동체의 보존, 물리적 측면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측면을 고려한 종합적 측면에서의 재생 등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이재준, 2009). 이에 따라 도시정비제도 및 정책의 시행에 있어서도 지역 주민의 관심과 사업에 대한 참여가 점차 강조되었다.

법정 도시계획에서 주민참여가 도입된 것은 1980년대의 도시계획 개정에 주민공청회가 포함되면서부터이지만(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4) 계획 제도 내에서의 주민 참여는 공청, 공람 등 소극적 정보제공의 형태로서 낮은 수준의 참여라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지역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을 주체로 고려하는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이 확산되면서 국내에서도 지자체 조례로서 소규모 단위의 지역재생에 주민의 참여를 도모하는 ‘마을만들기’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이 증가하였으며, 2007년 국토교통부와 행정자치부 등 정부부처에서 각

각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 사업,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시범 사업 등을 추진하는 등 주민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한편 2013년에는 정부에서 도시재생에 관한 중요성, 필요성의 인식과 함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2014년부터 각 지역의 도시재생의 방향을 설정하는 도시재생전략계획과 지역 내 쇠퇴지역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지역활성화의 목적에 따라 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으로 나누고 있는데 이 중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사업의 주요 목표로서 생활권 단위 생활환경의 개선, 기초 생활인프라의 확충, 커뮤니티 활성화 등 소규모 일자리 창출 등을 제시하고 주민이 직접 계획 및 사업시행과정에 참여하여 지역특색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그림 2-1> 주민참여형 도시계획의 기원

출처: 대한 국토·도시계획학회(2014), 새로운 도시계획의 이해, p237을 재구성

<표 2-1> 2000년 이후 주요 주민 참여형 도시 재생 제도 및 정책

연도	제도·사업명	주관부처	주요시책
2006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	건설교통부 (국토교통부)	어울려 사는 건강한 도시, 일하기 좋고 활력 있는 도시, 여유 있는 문화도시를 지향 사업기간은 3년('07년~'09년) 단위 주민참여와 지자체 주도의 특화발전전략 수립을 통한 도시경쟁력 확보
2006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시범사업	행정자치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쾌적한 지역공동체, 아름다운 지역공동체, 특색 있는 지역공동체 목표 9개 기본모델 유형을 지자체에 제시하고 자치단체별로 지역주인과 함께 지역여건을 분석, 기본모델을 참고하여 창의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2010	도시활력 증진사업	국토해양부 (국토교통부)	주거지 재생, 중심시가지 재생, 기초 생활기반 확충, 지역역량강화의 4가지 사업 유형 지자체, 주민 중심의 종합적 도시재생사업 추진 최대 국비 50억 원, 4년 동안 지원
201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도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한 공공의 역할과 지원강화를 명시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 도시 경쟁력을 제고,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2014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경제 기반형, 그린재생형)	국토교통부	2014년부터 도시재생 특별법에 근거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선도사업 공모 실시 경제기반형, 그린재생형 등 2가지 유형의 도시재생사업 선정 및 지원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은 항만, 철도, 산단 등 국가핵심시설을 기반으로 지역 내 새로운 경제 가치를 형성하여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은 쇠퇴한 구도심, 중심시가지 및 노후·불량 주거지역 재생을 위한 사업 추진으로서 중심시가지형, 일반형 유형으로 분류 계획수립 및 사업 추진의 주요 주체로서 주민 및 주민조직의 참여 명시



<그림 2-2> 도시정비 패러다임의 변화

출처: 국토교통부(2015), 함께하는 도시재생

또한 2014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공모된 선도사업의 사업시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에서는 도시재생을 위한 지원센터의 조직체계 내에 주거환경, 도시계획·설계, 건축, 경제, 복지, 사회, 경제 등 분야의 지역 활동가 및 교수, 실무전문가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활성화 계획 수립 시에도 도시설계, 도시계획, 건축 등 도시·건축 관련 전문가 이외에 사회, 경제, 문화, 복지, 지역, 마케팅, 커뮤니티 등 필요한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와 활동가 등이 참여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외에 주민역량강화사업 등 도시재생사업으로서 실시되는 사업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선도 지역 주민조직과 행정전담인력, 활동가 등이 LH 도시재생지원기구가 운영하는 도시재생대학 및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주민과 활동가의 역할을 구분하고 활동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하고 있다. 한편 선도지역 도시재생사업에서의 활동가는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총괄코디네이터의 역할을 보좌하여 주민역량강화사업, 주민공동체 발굴사업 등을 지원하는 보조인력의 측면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2> 2014년도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중 활동가 관련

구분	세분	내용
도시재생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직체계 및 구성	②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다양한 경제적·사회적·물리적 도시 재생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주거환경, 도시 계획·설계, 건축, 경제, 복지, 사회, 경제 등 분야의 지역 활동가 및 교수, 실무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활성화계획의 수립	다양한 전문가 참여	활성화계획 수립 시 사업총괄코디네이터의 조정·관리 하에 선도지역의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범위 및 수립방향 등 을 감안하여 도시설계, 도시계획, 건축 등 도시·건축 관련 전문가 이외에 사회, 경제, 문화, 복지, 지역, 마케팅, 커 뮤니티 등 필요한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와 활동가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도시재생 사업의 추진	주민 역량강화사업의 운영 및 지원	① 주민 역량강화사업은 개별 주민 및 주민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도시재생의 핵심주체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사 업으로서, 주민교육, 주민공동체 활동(방과후 학습지도, 어르신 돌봄 활동 등), 마을신문, 인터넷 라디오 등 정보 교류 매체 운영, 주민공모사업 발굴 등의 유형이 있다. ② 도시재생사업 초기단계에서는 개별 주민의 참여율 제 고 및 주민리더육성 에 중점을 두고, 주민조직이 성장함 에 따라 공동체 차원의 마을사업을 구상·기획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역량강화와 도시재생 관련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선도지역 주민조직과 행정전담인 력, 활동가 등이 LH 도시재생지원기구가 운영하는 도시재 생대학 및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예산의 집행	전문가 등 활용 비용	⑤ 사업총괄코디네이터나 코디네이터를 보좌하여 주민역 량강화사업, 주민공동체 사업 발굴 등을 지원하는 활동가 등 보조인력의 보수는 경력에 따라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기획재정부)’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출처: 국토교통부(2014), 도시재생전략·활성화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모니
터링·평가 계획 정책자료

2. 주민참여형 도시재생과 기반인력 양성의 흐름

주민의 지역에 대한 관심 증대와 참여 증진을 위한 지원에는 크게 일반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거주하는 지역, 마을과 도시에 관한 이해의 증진을 도모하고 도시재생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주민리더 양성이나 주민대학 형태의 교육지원체계와 도시재생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가지고 주민과 주민간 거버넌스, 공공과 주민의 가교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력 양성의 형태로 나눌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주민 역량강화에 관한 공공지원의 경우, 2000년 이후 마을만들기의 추진을 조례로 지정하여 주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도모하는 지자체가 증가하면서 조례 내에서 주민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한 조례 사례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조례 등의 내용으로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도시계획, 정비과정에서 주민의 참여가 점차적으로 확장되는 경향에 따라 참여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 하고 소통할 수 있는 주민양성을 위해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공공에서 직접 제공하거나 마을만들기 지원 센터 등에 위탁하여 지원하는 경우 등의 지원이 이루어져오고 있다.

<표 2-3> 협력적 마을만들기를 목적으로 하는 주민교육 사례



2008년부터는 중앙정부의 '살고 싶은 도시' 정책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 국토교통부 및 토지주택공사(LH) 주관 하에 전국에 수도권을 비롯하여 호남, 영남, 충청, 강원, 권역별 도시대학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¹⁾. 2008년 수도권 도시대학은 부평구 도시디자인 기획단이 행정측 수강생으로서 참여하기도 하였다. 초기 도시대학

의 목표는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 학술적인 전문 지식 전달을 통한 주민의 도시계획 및 도시정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 또는 마을에 대한 디자인 실습을 통해 도시, 마을만들기에 대한 실천력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실천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각 권역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 내의 주민, 대학, 행정, 시민단체 등 여러 지역 주체의 참여를 도모하였다(국토해양부, 2009). 이러한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형태는 2012년도에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 정책 추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2015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표 2-4> 2008년 도시대학 운영목표

구분	내용
도시대학 목표	상향식 도시계획의 기반형성
	실습형 교육으로 사업실천력 강화
	도시대학의 전국적 확산
	통합매뉴얼 보완 및 권역별 매뉴얼 작성
	온라인 학습기회 제공

출처: 국토교통부(2009), 2009 도시재생대학 연구

<표 2-5> 도시대학 운영 현황

	권역	지원근거	비고
2008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수강생으로 행정(부평구청 도시디자인 기획단 등 6명), NGO(23명), 시민(15명) 및 전문가(8명) 참여
2009	수도권, 충청권, 대경권, 호남권		-
2010	경기권, 인천권, 충청권, 호남권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	-
2012	충청권, 대경권		-
2013	수도권, 충청권, 동남권		-
2014	대구시, 부산광역시, 울산 중구, 인천광역시 중구, 성남시, 안동시, 울진군, 함평군, 춘천시, 서천군		선도지역 공모에서 1차 서류평과 통과 지자체가 직접 운영기관 선정 후 지정통보

출처: 국토해양부(2014), 2014년 도시재생대학 운영 시행방안 및 국토해양부(2010), 살고싶은 도시를 꿈꾸는 도시대학 매뉴얼

1) 2009년은 수도권, 충청권, 대경권, 호남권으로 편성하였으며 2010년은 수도권, 충청권, 동남권으로 구분하는 등 연도에 따라 편차가 있음

도시재생과 마을정책의 전문 활동인력으로서의 마을활동가의 경우 2000년대 초부터 마을만들기 활동과 함께 마을활동가라는 명칭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마을활동가’의 명칭이나 정의는 명확하게 통일된 것이 아니며 기대하는 역할(마을활동가, 지역활동가, 현장활동가, 공동체 코디네이터, 도시재생 코디네이터)이나 세대(청년활동가, 시니어 활동가), 이념(풀뿌리 활동가)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불리고 있지만 지역을 기반으로 하여 주민과 소통하고 지역의 물리적·비물리적 생활환경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개선을 도모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민주화에서 지역단위의 생활환경 개선으로 시민운동의 경향이 변화하면서 도시연대, 참여연대 등 지역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 공동체 의식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단체의 활동이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활동의 연장에서 1999년 '아파트 공동체 운동 전국 활동가 워크숍' 이 참여연대에 의해 개최되었고 같은 해 12월 마을과 사람을 생각하는 모임(마사모)에서도 지역 활동가와 전문가가 참여한 마을만들기 워크숍을 개최하였다(서울연구원(1999), 마을단위 도시계획 실현 기본방향, p9). 이러한 시민활동의 변화에서 출발한 활동형태 및 활동가를 마을활동가의 시초로 생각할 수 있다. 2005년 이후부터는 행정에서의 마을단위 활동에 관한 관심 및 관련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2007년 진안에서 개최된 제 1회 마을만들기 전국대회에서는 이미 마을활동가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대회 참여자에 있어서도 마을 만들기 주민대표(주민 리더), 마을활동가, 공무원, 사회단체 활동가 등으로 구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진안군(2007), 제 1회 마을만들기 전국대회 개요). 이는 도시 재생의 주체로서의 마을활동가가 주민, 사회단체 활동가와 또 다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소규모 지역단위, 마을단위에서 공동체와 경제 활성화 등을 목표로 하여 추진하는 정책 등에서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활동가를 위촉하여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진안군의 경우 살맛나는 농촌, 최고의 마을 건설'이라는 슬로건 아래 2003년부터 주민 참여의 상향식 마을 개발 사업인 ‘옴 마을 가꾸기’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2006년부터 '마을간사'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2-6> 진안군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기본조례의 마을간사 제도

조항	내용
제15조 (마을간사 채용 및 마을간사협의회 설치)	① 군수는 마을만들기 사업지구의 부족한 인적 역량을 보완하기 위하여 마을간사를 채용하여 파견하거나 사업지구에서 채용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채용된 마을간사는 행정 예산으로 채용되어 유사한 역할을 맡은 다른 그룹과 연계하여 “진안군마을간사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마을간사협의회 공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마을 간사는 마을 활동의 각종 제약 요인을 극복하고 외부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구상된 제도로써 차별화된 귀농 정책으로 외부 인재를 영입하여 지역 역량을 강화하고 내발적 지역 발전의 기틀을 가져 마을 단위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마을 간사’는 녹색 농촌 체험 마을, 농촌 전통 테마 마을, 산촌 종합 개발 사업 등 다양한 마을 단위 사업을 위해 활동하며 간사 1인당 1개 마을 담당을 원칙으로 한다.

수원시는 2010년 '수원시 좋은마을만들기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각종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위 조례를 근거로 '마을 계획사'를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을 시장이 위촉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표 2-7> 수원시 좋은 마을만들기 조례의 마을계획사 제도

조항	내용
제2조 (정의)	“마을계획사”란 주민과 함께 마을의 특색있는 사업을 발굴·제안 및 교육 등을 할 수 있으며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자문과 평가를 할 수 있는 위촉된 전문가를 말한다.
제28조 (마을계획사)	① 시장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계획사를 위촉·운영할 수 있다. ② 계획사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계획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특색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발굴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마을만들기 추진사업에 대한 자문, 평가 및 개선방안 모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마을만들기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제안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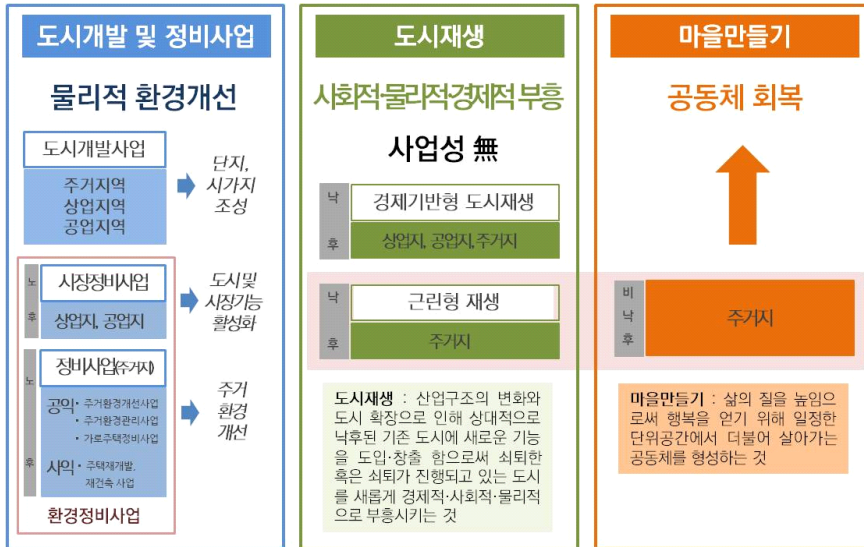
록 하였다. 마을 계획사의 업무로는 특색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발굴과 교육 및 홍보, 마을만들기 추진사업에 대한 자문, 평가 및 개선방안 모색, 마을만들기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제안 등을 수행하며, 수원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인 마을르네상스 센터에서 지역단위 마을계획사 육성을 위한 교육을 담당한다. 마을계획사의 주요 대상은 일반 지역 주민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행정에서 '마을활동가'를 대상으로 양성이나 활동 지원 체계 등을 구축, 운영하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흐름으로 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2012년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개소하고 5년 동안 약 3,000명의 마을활동가를 양성하여 마을공동체 구축을 지원하고 커뮤니티 공간, 육아사업, 마을기업 등의 활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을 발표했으며 부산광역시의 경우 2012년 부산형 도시재생사업의 사업단위로 마을활동가의 역할을 구성하고 이를 위하여 6개월간의 마을활동가 아카데미 교육 및 현장 투입 등의 역할을 규정하고 실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발굴, 양성하는 마을활동가는 공공의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하여 중간적 역할로서 주민과 행정 사이에서 실질적으로 주민을 접촉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상호 신뢰성 있는 관계를 구축하고 사업 추진 시 적절한 주민의 참여 방안을 마련하여 합리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또한 주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고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등 지역 내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역할 등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공공의 도시재생정책 및 마을정책과 마을만들기를 주요 목표로 활동하는 마을활동가의 관계에 있어서는 도시재생과 마을재생(마을만들기)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를 기존 연구의 내용을 통해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이석환(2012)은 마을만들기는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공동체의 자치, 협치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에 있으며 도시재생의 핵심은 쇠퇴한 '도시'에 활력을 다시 불어넣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 따라서 마을만들기의 목적은 근린의 이웃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단위적인 공간에서의 사회적 자본의 형성이며, 도시재생의 목적은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주민과 시민의 자구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송희영(2012)은 마을만들기를 개인의 특정장소에 대한 기억의 연대를 통해 장소성을 집단으로 공유하는 것으로 보고, 나아가 지역의 고유한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으로 연결하고 있다.



<그림 5-5> 마을만들기와 도시재생의 차이

출처: 이석환(2012), 지속 가능한 마을 만들기의 원칙: 장소시대를 위하여, p5를 재구성

김권수(2014)는 생활과 환경에 관련한 도시재생활동이 주민의 공동체의식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히고,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생활재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민의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재생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의견을 종합하면 마을만들기는 그 활동의 목적으로서 일정 장소에 기반한 주민 공동체와 공동체의식(사회적 자본)의 형성, 회복 또는 향상을 강조하고 있으며, 도시 쇠퇴에 대해 물리, 사회, 경제, 공동체 등 종합적 측면에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실시하는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결과에 있어서도 지역의 공동체의식이 향상되는 것이 선행될 때 그 결과가 더욱 바람직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여러 지자체에서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마을활동가와 학술영역, 실제 활동영역에서 지칭하는 마을활동가의 범주에는 그 활동 목적과 근거제도 등에 따라 마을활동가, 마을지원활동가, 지역활동가, 공동체 활동가, 도시재생 코디네이터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이들은 민간 주체이지만 도시재생사업에서의 수행 기대 역할, 역량강화 교육 단계 등에 따라 주민 및 주민 조직과 구분되고 있다. 신중진 외(2010)의 연구에서는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사업을 대상으로 참여 주체를 주민(조직), 행정, 전문가, 시민단체로 구분하고 있으며, 권진휘(2015)는 부산광역시 도시재생 사업 주체를 마을주민, 마을활동가, 청년활동가, 행정공무원, 교육컨설팅으로 구분하는 등 민간부문의 기반인력을 주민, 시민단체, 활동가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앞으로의 본 연구의 내용에 있어서는 마을활동가의 정의 및 유형에 있어 커뮤니티 형성과 공동체 의식 강화의 목적이 있는 활동을 수행하며 또한 이를 통한 마을(도시)의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재생, 소통의 연결자이자 갈등 관리 역할을 수행하는 확대된 범위의 의미로 이해하되, 사례 지자체에서 제도의 목적 및 활용분야에 따라 지역재생활동가, 청년활동가 등 활동가의 명명을 다르게 하는 점을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표 2-8> 마을활동가의 범주

명칭	출처	정의, 분류
마을활동가	인천, 부산 등 외 여러 지자체 정책 및 제도 등에서 활용	마을사업이 진행될 때 주민과 행정기관의 중간자 역할로 지역공동체 회복은 물론 마을의 자생력을 키우며 주민자치를 이끄는 역할 (부산 사하구) 마을 내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주민접촉을 통한의 견수렴 등의 역할(부산 산복도로 르네상스) 지역공동체에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와 공동체의 욕구를 함께 해결하는 사람(인천 남동구)
마을지원활동가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마을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다른 주민의 마을활동 을 돕고 지원하는 사람. 대표적으로 마을상담원, 마을강사, 마을컨설턴트, 자치구마을생태계지원단 실무자, 마을기업 인큐베이터, 커뮤니티전문가(공 동주택) 등
지역활동가	이연숙 외(2013)	지역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며 지역 재생 사업과정 에 참여하여 협력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조 율하는 코디네이터
현장활동가	제주 외	농촌지역, 노동현장, 분쟁지역 등 특정 현장에 기 반하여 나타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활동하는 사람을 주로 칭함
청년활동가	서울특별시 뉴딜일자리 정책 (서울특별시마을공 동체종합지원센터)	좋은 일자리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공공 의 일경험을 통해 역량을 배양하고, 청년들의 마 을살이를 통해 삶터와 일터가 일치하는 서울특별 시 공공일자리에 대한 명칭
시니어 동네활동가	서울특별시 경로당코디네이터 사업 (서울특별시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50~64세의 퇴직한 서울특별시민을 대상으로 하 며, 찾아가는 복지와 주민 중심의 마을생태계 조 성을 위한 활동 수행을 주 목적으로 하는 서울특 별시 공공일자리에 대한 명칭. 사례관리 서포터, 가정경제상담사, 시니어마을새내기 등 3개 분야 모집
공동체 활동가	전라북도(진안, 전주), 안산시, 부산광역시 등	마을만들기 및 공동체사업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기관 활동가
풀뿌리 활동가	Grassroot에서 유래, 다수 사용	권력을 갖지 못한 시민이 스스로의 삶의 공간에서 자신의 삶과 삶의 공간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와 세상을 변화시켜 가려는 의식적인 활 동으로 정의
도시재생 코디네이터, 도시재생 전문가 코디네이터	국토교통부, LH 도시재생지원기구 등	일반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총괄하는 전문성 높은 민간인력(교수 등)을 칭함

제2절 선행연구 검토

1. 기존 연구 동향

도시재생은 주민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마을만들기와 궤를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초기 도시재생 기반인력의 양성 필요성에 있어서는 마을만들기를 수행하면서의 과제인 주민의 이해와 적극적인 활동인력의 필요성을 연구 결과를 통해 논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후 마을만들기가 제도화되어 인력 양성의 근거가 마련되고 또한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이 정착화 되면서 도시재생 지원 정책을 공공과 주민 사이에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마을활동가에 대한 필요성과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최근의 연구에 있어서는 주민의 적극적 관심 뿐 아니라 마을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의 구상, 마을활동가의 활동에 대한 공공의 인증이나 검정, 교류체계 등을 통해 전문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 활동과 확장을 키워드로 하는 연구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1) 마을만들기의 지속성과 주민역량 지원에 관한 연구

초기 마을만들기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일본의 마치즈쿠리 등의 소개와 국내의 자발적인 공동체 활동 사례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면, 마을만들기가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도시재생의 방향의 하나로 인식되고 정부 정책과 시범사업 등이 추진되는 등 운용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나타나는 연구 주제에 있어서는 실제 사례를 통해 실제 주도적 참여자가 되는 주민의 활동의 활성화와 일반 주민의 관심 제고, 정책과 주민 간의 간극 사이에서 매개 가능한 중간조직의 역할 등의 필요성으로 귀결되는 형태로 말할 수 있다. 이는 마을만들기의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 지속적 참여와 활동이 지속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자체적, 자발적으로 지속적인 동기부여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관주도가 아닌 주민 참여의 도시재생이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동기부여와 관심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 제도, 정책 등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주민이 스스로 거주하고 있는 지

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또한 실제로 지역 과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동기에는 여러 요소가 있을 수 있으나, 최근의 주민참여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는 이러한 동기 부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로서 주민의 역량강화를 주시하고 있는 관점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위와 같은 관점의 연구는 실제 마을만들기 등 주민 참여형 도시재생의 참가자로서의 주민을 대상으로 한 분석과 주민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만족도 조사와 같은 과정으로 다수 진행되었다.

이윤석 외(2008)는 함평군과 나가하마시의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를 전개과정과 주민참여의 형태적 관점에서 비교하여 두 사례가 행정의 역할과 마을만들기 초기의 주민참여 형태에서 서로 다른 양상을 나타냈음을 밝혔으며 '관 주도형 마을만들기' 형태는 위계제 원리이며, 폐쇄사회와 소외사회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가 어려우나(마츠오 타다스(2006) 인용)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 이행과정의 일부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영주 외(2012)는 일본의 마치즈쿠리 성공 사례 지역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성공적인 마을만들기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주민 참여가 가장 중요하며, 실제로 사례지역의 주민들이 마을활동에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주민이 공동체라는 인식을 가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며, 이러한 관점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주민 뿐 아니라 행정에 있어서도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석현(2012)은 국내 마을만들기 사례 분석을 통해 행정과 전문가, 조력자의 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주민의 전체 참여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주며 또한 참여지속성과 정주의식향상, 지속적인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혔으며 따라서 사업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전문적 지원과 교육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신중진 외(2010) 역시 국내 마을만들기 사례 분석을 통해 사업의 거버넌스가 구축되는 것은 주민 역량 강화가 중요함을 강조하였으며 초동기 마을만들기 사업이 행정 주도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국내 사정에 있어서는 각 단계 진행에 대한 협력적 의사결정과 사업 진행단계 뿐 아니라 사업 종료 이후에도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세미나, 교육 등을 통해 교류를 확대하는 지원에 대해 제안하였으며 이러한

지원체계에 있어서는 사업 유지관리 뿐 아니라 향후의 활동 전개에 있어서도 지속적인 확장을 기대할 수 있다.

<표 2-9> 마을만들기의 지속성과 주민역량 지원에 관한 연구

연구자	연구명	주요연구내용
이윤석, 김세웅 (2008)	함평군과 나가하마시(長浜)의 주민참여형 마을 만들기 비교연구	마치즈쿠리와 마을만들기 관련 이론모델 고찰 함평군 및 나가하마의 사업전개과정 시계열 분석 및 모델 적용을 통한 비교분석 및 마을만들기 모델 효용성/타당성 평가
김영주, 박남희 (2012)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관점에서 본 일본의 마을 만들기 사례 분석	커뮤니티 지속가능성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지속가능한 커뮤니티의 개념 분석을 정립(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지속성) 및 세타가야, 카와고에, 모토마치 등 일본의 4개 선행 사례 대상지역 내 현장조사 및 인터뷰, 관찰조사 진행
이석현 (2012)	마을만들기의 효율적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시흥시 희망마을만들기를 대상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지역을 대상으로 사업현황, 지원방법 등 문헌조사 사업주체를 대상으로 사업전후 참여의식 변화 및 사업성과, 만족도, 행정 및 전문가의 지원이 미친 영향 등 설문조사 사업 추진 행정 담당자를 대상으로 단계별 사업성과 평가
신중진, 신효진 (2010)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주민의 역할변화에 따른 지원방안 연구-서울 독산 3동 마을만들기 사례를 중심으로	문헌조사를 통한 일반주거지의 주민참여 마을만들기에 대한 행정 지원의 변화 고찰 참여관찰, 면담조사를 통한 금천구 독산동 마을만들기 사업 내 거버넌스 변화 및 주체별 역할 검토 개별사업 특성에 따른 주민 참여수준 분석을 통한 주민 역량강화 요인 및 지원방안 고찰

2) 전문 활동인력의 필요성 및 양성에 관한 연구

거주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현안 해결을 위한 활동을 주도하거나 참여하는 주민의 활동 형태는 일반적으로 자발적인 참여와 공동체에 관한 의식을 상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행정 주도의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의 참여에 있어서는 이러한 전제가 갖추어지지 못할 수 있으며, 따라서 추진 과정에 있어 어려움이 있거나 의도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난점에 대한 대책 중 하나로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등 행정이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행정과 주민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로서의 마을활동가의 역할이 주목되고 있다.

오다해 외(2014)는 국내 60개 마을만들기 사업을 대상으로 참여 주체의 역할과 활동 내용을 분석하였으며, 결과로서 주민, 행정, 시민, 전문가의 역할을 구분하고 그 특성을 도출하였으며, 특히 행정이 주도적인 경우 주민의 교류활동 촉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시민에 의해 형성된 단체나 주민참여, 환경개선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 주도형일 경우 주민간의 교류가 활발하였다는 점을 제시하고 이러한 점에서 행정과 주민간의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보았다.

양재혁(2010)의 연구는 전문가 및 시민단체가 마을만들기 사업을 신청, 초기 주도한 부산 산성마을 사례를 통해 주체별 역할과 과정을 개괄하였으며, 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가 조정되지 못한 점을 한계로 지적하고 특히 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점에서 적극적 주민 리더 성격의 마을활동가의 역할이 필요함을 밝혔다.

이은지 외(2013)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례를 대상으로 구성원 간 상호작용과 네트워크 형성과정을 파악하여 특징을 분석하였으며, 결과로서 공동체 형성 및 조직화 단계에서 활발한 의사소통과 정보 공유가 중요한 요인을 제시하였다. 특히 본 사례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지원을 통해 활동가가 마을주민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주민의 참여를 촉진하며 공동체에 참여하기 쉽게 하는 등의 지원이 이루어짐을 통해 마을주민 조직화가 가시화된 것을 밝히고 있다.

한편 최강림(2015)의 연구에서는 실제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및 운영에 마을계획

가, 마을활동가를 참여시킨 부산광역시 산복도로 르네상스 마을만들기 사업 운영 사례를 사업주체와 사업과정, 사업 내용의 관점에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로 주민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함을 주지시킴과 함께 공공, 전문가의 지원이 소통, 협동,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사업 주체간 협력과 소통을 위해서는 장기적, 지속적인 연계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특히 용역사가 투입될 경우 업무 영역과 용역 기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표 2-10> 전문 활동인력의 필요성 및 양성에 관한 선행연구

연구자	연구명	주요연구내용
오다해, 김철영 (2014)	마을만들기 사업에 있어서 참여주체의 특성에 관한 연구 : 주민참여기법을 중심으로	마을만들기 사업, 참여주체, 주민참여, 주민참여기법 관련 문헌고찰 주요 참여 기법을 3단계(단순참여, 의견제시, 설계 참여로 나누어 국내 60개 마을만들기 사업에 적용하여 특성 분석
양재혁 (2010)	마을만들기 사업의 추진 과정에 관한 정성적 평가-부산 산성마을을 중심으로	부산 산성마을 만들기 사업 내 마을계획가로서 참여관찰 추진과정에 대하여 파트너십과정, 운영체제 관련 정성적 평가항목을 구성하여 평가
이은지, 최현선 (2015)	도시 커뮤니티 형성 과정의 탐색: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례를 중심으로	커뮤니티 형성 관련 이론고찰 서대문구 내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통한 커뮤니티 형성 과정에 관련한 관계자 심층 인터뷰
최강림 (2015)	부산광역시 '산복도로 르네상스 마을만들기 사업' 운영사례 연구: 서대신1동 '고분도리 마을만들기 사업'을 중심으로	부산광역시 르네상스 사업관련 문헌조사 및 마을계획가로서 참여관찰 마을만들기 사업 주제, 과정, 내용 관점에서 분석 및 고찰

3) 마을활동의 인증(검정)체계에 관한 연구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에 있어 전문지식의 필요성 및 주민과의 소통의 중요성은 다수 연구를 통해 강조되어왔으나 마을활동가의 양성과 공공의 인증에 대한 연구는 지원주체가 주로 공공으로 귀결되는 만큼 민간영역에서의 연구는 많지 않으며, 연구의 관점은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한 시사점의 도출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인증과 검정에 관한 연구들은 공공이 참여형 도시재생 사업 등을 실시하는데 있어 전문성과 커뮤니케이션 스킬, 경험을 갖춘 활동가를 위촉하여 사업을 비교적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으며 또한 활동가에게는 현재 적극적인 마을 활동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는 생활상의 어려움 등을 일부 해소할 수 있는 요소로 생각할 수 있으나, 마을활동에 있어서의 자율성의 침해와 마을활동가가 행정의 일부로 여겨질 수 있다는 점 등이 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권진휘(2015)는 산복도로 르네상스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에서 현재까지 도시재생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역할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도시재생 지원센터의 운영체계 및 전략을 설명하였으며, 특히 마을주민, 마을활동가, 청년활동가, 행정공무원, 교육 컨설팅 등 세분화된 교육지원시스템을 도입하고 마을활동가 인증시스템을 통해 마을활동가의 사명감과 자긍심을 고취하는 한편 체계적인 인력양성 및 운영을 통한 인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을 밝혔다. 그는 장기적 관점에서 도시재생 중간지원조직이 사업 전체에서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 할 뿐 아니라 사업 흐름을 주도할 수 밖에 없게 된다고 주장하며, 향후 도시재생 사업의 실시는 중간지원조직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설명하였다.

김홍주 외(2014)는 도시재생 지원기구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자를 대상으로 도시재생전문가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연구한 바 있다. 위 연구에서는 국내의 건축기사, 도시계획기사 등 국가기술자격과 유사한 형태의 도시재생사의 자격을 주는 방안을 상정하고 있는데, 일본의 재개발 플래너와 영국의 도시계획가 인증제도 등을 고찰하여 도시재생에 대한 민간 전문가의 역할과 가이드라인을 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표 2-11> 마을활동의 인증(검정)체계에 관한 선행연구

연구자	연구명	주요연구내용
권진휘 (2015)	부산광역시 도시재생 중 간지원조직의 전략과 구 상	도시재생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산복도로 르네상스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형성과정 및 지원체계 개괄 교육시스템 및 도시재생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전 략
김홍주, 조승연, 김주진, 이영환, 심종현 (2014)	도시재생전문가 자격제도 도입 연구	도시재생 지원기구의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육성될 전문인력에 대한 위상강화차원의 자격제도 도입 검 토를 목적으로 함 국내외 도시재생 관련 자격제도 사례조사 도시재생전문가 자격제도 도입에 대한 인식조사(설 문) 실시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국내에서의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에 관한 연구는 실제 마을만들기 사업 등 관련 사업을 진행하면서 드러나는 사업 참여 주체, 사업과정, 참여방식 및 소통, 공공 지원 형태, 전문성의 활용 등을 분석의 대상으로 하여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참여형 도시재생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공통적인 인식 아래 진행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많은 연구에서 분석의 결과로서 주민의 이해 증진과 전문지식인력의 활용 등을 적극적 대안으로 제안하고 있다.

한편 많은 연구에서 주민 리더, 마을활동가 등 적극적인 활동인력의 양성 및 활용에 대한 방향 제시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앞서 주지하였듯이 인력 양성의 주체가 공공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은 주민리더 양성, 주민역량강화의 측면보다도 마을활동가 등 전문적인 지식 및 소통경험을 갖춘 인력의 양성의 측면에 더욱 난점이 있어 관련한 선행 연구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2013년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인천광역시 내의 마을공동체를 지원하는 등 참여형 도시재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참여형 도시재생 사업이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에 있는 관계로 추진 경험이 부족하며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 단계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천광역시의 마을공동체 지원, 저층주거 관리사업 등 참여형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과정 및 현황을 조사하고 향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특히 인천광역시에서 주민역량강화의 측면에는 지속적인 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가 있었으나 마을활동가 등 전문적 기반인력의 양성에 대해서는 초기 단계에 있는 만큼 사례 및 분석에 있어서는 이러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분석의 과정에서는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문적인 인력 양성에 대한 사례 및 국외의 참여형 도시재생 사업 내에서의 전문인력 활용 사례 조사를 진행하며, 인천광역시 내 마을활동가를 대상으로 활동에 관련한 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인천광역시 내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이해의 저

변 확대 및 소통의 폭 확대, 도시재생에의 적극적인 참여 및 공동체의식의 강화 등 사업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인천광역시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기반인력 양성 정책 현황 및 발전방안

A study on current community organizers training policy and development
direction for Improving effectiveness of participatory urban regeneration
projects in Incheon

제3장

도시재생 기반인력 육성 및 지원 사례 분석

제1절 국내사례

제2절 국외사례

제3장 도시재생 기반인력 육성 및 지원 사례 분석

제1절 국내사례

1. 서울특별시

1) 마을활동가 양성

(1) 개요

서울특별시 마을활동가 육성사업은 2012년부터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서 위탁 추진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 마을활동가는 '마을활동가는 마을에 살며 주민과 소통하고 생각을 모아내는 전문가로서 마을공동체 형성의 물꼬를 터줄 핵심주체'로 정의되어 주민의견수렴과 거버넌스 형성 측면을 강조하고 있으며²⁾ 2017년까지 약 3,180명의 양성 계획을 밝힌 바 있다. 2013년 현재 기본 교육 등에 약 250명이 참여하였으며, 2015년 현재 약 80명의 마을활동가가 센터에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다.

<표 3-1>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내 마을활동가 양성 계획

사업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마을활동가 양성	인원 (명)	500 (190)	900 (400)	1,380 (480)	1,980 (600)	2,580 (600)	3,180 (600)
	사업비 (백만원)	72	199	224	249	249	249

(2) 사업 도입 배경

서울광역시는 2012년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시행 및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마을

2)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표 3-2>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사업내용 중 전문인력 양성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항	내용
제23조 (종합지원센터 기능)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마을공동체 기초조사, 사업 분석·평가·연구 3. 마을공동체의 사업계획 수립·실행 지원 4. 마을공동체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5. 마을공동체 일꾼 발굴 및 육성 6.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교육·홍보·전파 7. 마을공동체 만들기 자원관리 8.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같은 해 해당 조례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담당관 소관으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개소하였다.

조례 내용으로서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는 마을공동체 일꾼의 발굴 및 육성과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교육·홍보·전파를 담당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마을활동가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내에서 상담, 교육, 컨설팅 등 주민활동을 지원하는 마을지원활동가, 마을공동체 커뮤니티 아카이브를 담당하는 마을공동체 기록 활동가, 뉴딜일자리 추진사업으로 운영되는 마을로 청년활동가 등 여러 형태 및 목적을 가진 마을 활동 추진·지원 관련 계층을 지원하고 있다.



<그림 3-1>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행정위계



<그림 3-2>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목표

출처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http://www.seoulmaeul.org>)

(3) 교육대상 및 프로그램

서울특별시 마을활동가 양성은 마을활동가를 원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선발하거나 자치구 및 종합지원센터 등의 추천을 받아 소정의 교육을 거쳐 양성하며, 청년, 여성, 은퇴자 등이 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지원센터의 마을공동체 사업에 참여한 마을 주민 중 마을활동가로 발굴되기도 하며, 발굴된 활동가는 마을자원조사, 프로그램을 총괄 기획 및 진행하는 등 마을 활동을 전개할 수 있으며 활동 과정에서 소정의 활동비를 지원받는다.

서울특별시의 마을활동가의 범주에는 마을 공동체 상담, 선정 사업에 관한 컨설팅 등을 담당하는 마을상담원, 마을 교육 등을 담당하는 마을강사 등으로 분류하여 추진했으나 2015년부터는 마을지원활동가로 일원화하고 있다. 마을지원활동가는 지역 내 마을공동체 성장·확산을 위해 자치구에서 상담, 컨설팅, 교육, 자원연계 등 주민지원활동을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며 필수과정과 강사과정으로 나누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2015년도는 필수과정 총 82명을 모집하였으며 3일간 서울특별시 공동체 공모사업 및 마을상담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강사과정은 필수과정 이수자 중 선택할 수 있으며 3일 동안 마을공동체 교육에 관한 이해, 공동체 교육 및 사례, 시범강좌 등의 내용으로 진행하였다.



<그림 3-3>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사업 내 주체별 역할

출처: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2014), 2013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성과자료집

<표 3-3> 2015년 마을지원활동가 교육계획 필수과정

일정	주제	세부내용
1일차	여는 시간	•전체 프로그램 소개
	마을공동체, 서울	•마을 그리고 마을살이 •주민주도 마을공동체의 특징 •민관 거버넌스
	주민주도 마을공동체	•마을공동체 이해와 사례:성미산 마을을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보호 관련 내용
	센터 기본계획과 전략	•마을지원센터의 진행경과 및 향후 방향
	마을지원활동가의 역할	•마을지원활동가의 역할과 운영 방향
2일차	정리하기	•마을, 마을공동체, 마을살이, 마을지원활동가 그리고 나
	의사소통 워크숍 I	•의사소통 워크숍 I
	의사소통 워크숍 II	•의사소통 워크숍 II
	마을공동체 사업의 이해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사업 개괄 •마을지원절차 및 보조금 집행기준
	사업계획서 작성법	•사업계획서 서식 및 작성방법
	마을상담 의 실제	•마을상담 사례 발표 •마을상담 노하우 •마을상담원의 자세와 태도
3일차	마을상담 실습하기 I	•마을상담 실습
	마을상담 실습하기 II	•마을상담 실습 및 사업계획서 작성

출처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http://www.seoulmaeul.org>)

<표 3-4> 2015년 마을지원활동가 강사과정

일정	주제	세부내용
1일차	소개하기	•자기소개
	마을강사의 역할	•마을강사의 역할과 운영 방향
	마을공동체 교육의 실제 I	•‘마을공동체 이해’ 시강 •핵심 내용 및 강조점 설명
	마을공동체 교육의 실제 II	•‘마을공동체 사례’ 시강 •각 사례의 핵심 내용, 강조점 설명
	마을공동체 교육의 핵심 내용 정리	•마을공동체 교육 핵심 내용 토론 토론1. 마을공동체 도입 배경, 필요성 토론2. 마을, 공동체, 마을공동체 개념 토론3. 마을공동체의 특징 자발성, 공공성, 개방성, 호혜성(연대와 협력-사람, 공간, 환경), 보충성
2일차	마을공동체 사례 정리 I	•나의 마을공동체 사례 정리하기
	마을공동체 사례 정리 II	•나의 마을공동체 사례 공유 및 피드백 1
	마을공동체 사례 정리 III	•나의 마을공동체 사례 공유 및 피드백 2
3일차	시강하기 I	•시강 및 피드백
	시강하기 II	•시강 및 피드백
	시강하기 III	•시강 및 피드백

출처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http://www.seoulmaeul.org>)

한편 뉴딜일자리 사업으로 2013년부터 청년 공공근로사업과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는 마을로 청년활동가는 만 18세부터 39세까지의 서울거주 청년 중 실업자, 미취업자, 대학교 혹은 대학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매 해 150명을 선발한다. 선발된 마을로 청년활동가에 대해서는 사전 활동교육 후 1년 동안 여러 마을 공동체 관련 현장으로 파견되어 마을 사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5) 향후 활용

서울특별시 마을활동가는 독자적으로 마을 활동을 지원하거나 지원센터 공모를 통해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 마을지원센터의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상담, 교육, 컨설팅 등 주민 활동을 지원하는 마을지원활동가로서 위촉되어 활동할 수 있으며 활동기간은 1년이 주어진다.

마을로 청년활동가의 경우 일자리를 보장하는 사업이므로 선정 이후 1년 동안 마을활동에 관련된 여러 참여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 지역재생활동가

(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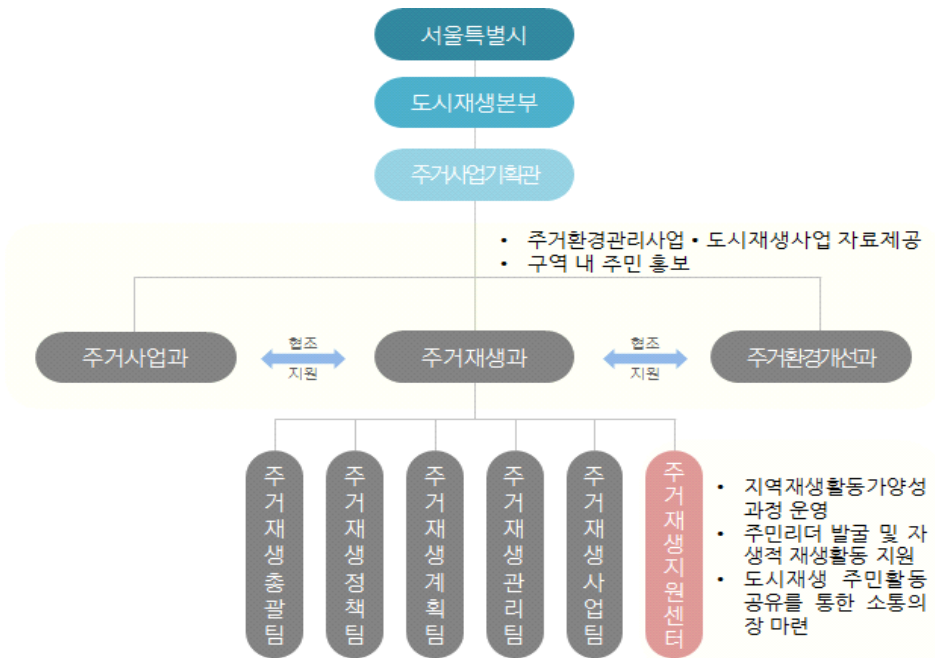
지역재생활동가 양성은 서울특별시 내 기존 재개발 사업지역 중 갈등조정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재개발사업의 대안으로서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활동을 추진하거나 이러한 자생적 도시재생 주민활동을 지원하여 주민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커뮤니티화 등 사람중심, 과정중심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주거재생지원센터에서 지역재생활동가 양성을 담당하며, 교육대상은 저층주거지 내 주거환경관리와 재생을 원하는 주민으로서 2015년 첫 시행에는 상반기 2개지역(성북구, 동작구), 하반기 2개지역(구로구, 용산구)으로 구분하여 추진하였다.

(2) 제도 도입 배경

지역재생활동가 양성교육 담당기관인 서울특별시 주거재생 지원센터는 서울특별시 내 재개발 정비사업 관련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기존 갈등 조정관 등의 갈등 지역 파견활동으로 시작하여 재개발 사업 관련 상담 및 실태조사 등을 거쳐 현재는 정비사업에서 재생사업으로 도시정비의 인식을 바꾸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지역재생활동가는 이러한 고민에서 나타난 제도로써, 2014년 정재개발 정비사업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재생을 위해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해당 지역 주민이 스스로 도시재생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역할을 담당하도록 목표하고 있으며 2015년 처음 시행되었다. 서울특별시 주거재생 지원센터는 주민중심의 마을재생을 위해 지역주민과 자문계획가, 공무원, 마을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자문계획가 양성을 위한 도시재생 아카데미 등을 운영하며 도시재생사업지역과 주거환경관리사업지역을 대상으로 자문 및 계획수립을 지원하는 자문계획가 양성을 추진하여 2회 운영한 바 있으며, 2015년에는 자문계획가양성을 위한 도시재생 아카데미를 지역재생활동가 양성 프로그램으로 통합 운영하고 있다.



<그림 3-4> 지역재생 활동가 교육 운영 관련 행정체계 및 역할

출처 : 서울특별시 주거재생과(2015), 지역재생활동가 양성과정 운영계획 재구성

(3) 교육대상 및 프로그램

지역재생활동가 양성교육은 찾아가는 교육 시스템으로, 실제 도시재생 사업지 및 사업가능지역 거주민 중 주거환경관리와 도시재생을 원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상, 하반기로 추진하며, 각 지역별 약 50명 내외를 모집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기초교육과 실습교육으로 구분되며 각 6주, 4주간 진행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으나 2015년 하반기의 경우 기초교육과 실습교육 모두 4주로 구성되었다.

기초교육은 6주(4주) 동안 토론식, 강의식, 그룹토의식 등 다양한 참여형 방식의 교육으로 구성하여 저층주거의 가치 고민 및 주민인식 개선, 주민참여 도시재생에서의 참여주체별 역할,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강의와 사례지 견학, 지역자원 활용과 공동체의 필요성 인식으로 지역의 잠재력 재발견을 주요 교육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초교육 종료 후에는 기초교육을 4주 이상 수료한 자를 대상으로 실습교육



<그림 3-5> 지역재생활동가 양성과정 안내 포스터(좌) 및 교육과정 (우)
출처: 주거재생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facebook.com/uhregeneration>)

을 실시하며 지역조사 및 공동체 구성에 대한 현장 워크숍을 진행한다. 실습교육은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진행하며, 주요 내용으로서 지역활동가의 역할과 자원조사방법론, 실습지를 중심으로 한 마을의 물적, 인적자원 조사 및 이슈화, 마을비전 수립 및 자원연계 전략 수립, 주민참여 재생활동 등을 직접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 실습대상지는 교육진행 지역 단위로 인근 도시재생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추진구역과 연계하여 선정하는 방식으로 보다 지역이해도와 지역밀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 이후에는 지역재생활동가를 대상으로 리더십강화 보수교육 실시지원 외 도시재생 주민활동에 있어 다양한 주민참여 활성화 지원 및 커뮤니케이션 기술 및 갈등관리, 원활한 의사결정 방법, 마을기업, 마을기금 운영 등 전문분야와의 업무연계 및 협조체계 구축, 지역 내 재생활동 소모임 간 연대망 형성 및 지역간 주민 네트워크 구축 등 도시재생을 위한 주민 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표 3-5> 지역재생활동가 2015년 상반기 기초·실습교육 프로그램

교육	구분	강의명
기초교육	1	살고 싶은 마을, 살 수 있는 마을 - 우리사회 집과 마을의 의미를 돌아보며 추구할 가치 찾기
	2	내 손으로 나의 마을 다시 살리기 - 참여주체별의 역할을 통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 인식하기
	3	공동체가 함께 사는 마을 사례 - 자생적인 마을공동체가 일궀낸 도시재생 사례 알아보기
	4	마을을 다시 살리는 도시재생사업 - 다양한 도시재생사업 알기(서울형 도시재생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5	이웃마을 보고 배우기 - 도시재생사업 사례지 견학(도시시재생선도사업지, 주거환경관리사업지 등 2개소)
	6	나와 이웃이 마을에서 함께 사는 방법 - 마을자원을 활용한 공동체 활성화로 잠재력 재발견
실습교육	1	지역재생 활동가의 역할, 동네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 지역재생의 의미, 활동가의 역할 및 할 일 - 지역재생을 함께할 나와 당신의 이야기 나누기 - 주민과 관계 맺기 (이웃과 사귀고 소통하기)
	2	주민의 장점, 지역의 장점 발견하기 - 도시재생의 주민참여를 위해 주민과 지역의 장점을 찾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3	재생사업 사례지 탐방 - 재생사업 사례지를 방문하여 주민활동 경험을 청취하고, 사례에서 시사점 찾기 - 재생사업에 대해 이해하기
	4	우리동네를 위한 지역재생 비전 찾기 - 교육을 통해 꿈꾸게 된 지역재생 비전 찾기, 동네별 활동계획 작성하기

출처 : 서울특별시 주거재생과(2015), 지역재생활동가 양성과정 운영계획, 지역재생활동가 양성과정 실습교육 계획

(5) 향후 활용

지역재생활동가는 현재 마을활동가 및 도시재생 사업 용역수행자의 상당수가 재생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는 배경에서 시작된 양성 프로그램으로서, 도시재생사업의 현장을 이해하고 실무에서 활용가능한 교육을 위한 취지로 시작되었다. 지역재생활동가 프로그램 자체에서는 전체 교육과정 중 일정부분 이상 참여자에 대해 수료증을 발급하는 것 외에 향후 활용에 관한 지침이나 보수 규정은 없으나 지속적인 수료생 네트워크 구축을 실시할 예정에 있으며, 실무를 중심

으로 하는 전문교육 등 보수교육을 통해 현재 진행되는 도시재생 사업 내에서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표 3-6> 지역재생활동가 전문 교육 커리큘럼

회차	강의 주제
0	지역재생 공동체 활동가 전문 과정 소개 및 학습역량 (현 수준 스스로 평가하기, 교육에서 바라는 점 토의)
1	지역재생 활동가란 누구이며, 어떤 역할을 할까
2	도시재생사업의 전반적 흐름과 법적체계 고찰
3	주민참여를 통한 상향식 도시계획(재생)의 시작은 ‘경청’
4	참여자(Participant)와 조력자(Facilitator), 그리고 협상가(Negotiator)
5	재생사업에서 내집 고치는 방법! 알아야할 핵심사항
6	도시재생, 스토리텔링할 것인가? 스토리메이킹할 것인가?
7	가장 쉽게, 가장 빨리 알 수 있는 우리 마을 마스터플랜 그리기
8	도시재생의 안전 패러다임, 안전(安全)과 안심(安心), 안정(安靜)
9	도시재생을 위한 마을사업 경영과 운영관리
10	도시재생을 위한 전문 워크숍 (부제: 함께 만드는 지역재생 공동체 활동 안내서) 수료식 및 학습역량 자가 평가

출처: 서울특별시 주거재생과(2015), 지역재생 활동가 전문 교육 계획



<그림 3-6> 서울특별시 마을실천대학 포스터

출처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http://www.seoulmaeul.org>)

2. 부산광역시

1) 마을활동가 육성·운영

(1) 개요

부산광역시에서는 2010년부터 행복마을만들기 사업,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등 창조도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역량강화 사업을 실시해왔으며, 주민이 기존 단순 관람객, 수강생의 위치였던 것에서 벗어나 마을활동가, 마을리더 등 사업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에서 마을활동가 양성을 담당해왔다. 2013년에는 2013년도부터 5년 간 1004명의 마을활동가를 발굴, 육성하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목표치를 밝힌 바 있으며, 2015년 7월 부산광역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부산광역시 도시재생 지원센터로 통합 운영하게 되면서 마을활동가 운영지원에 관한 업무도 이관하여 실시하고 있다.

(2) 사업 도입 배경

부산광역시는 2010년 부산최대 취락지역인 감천마을을 대상으로 한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및 부산광역시 내 낙후동네 단위로 마을 내 잠재자원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행복마을 만들기를 추진하면서 사업지속성 및 통합적 재생 차원에서 시설 사업과 공동체 사업을 공동 추진하였다.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주민기획가, 주민활동가 등이 주요 사업 주체로 위치하였으며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은 주민역량강화 사업을 내용에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을 관리하기 위하여 2012년 ‘부산광역시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13년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개소하였으며 같은 해 마을활동가 육성계획(1004 프로젝트) 등을 발표하며 주민역량강화에 대한 적극적 목표를 제시하였다.

마을활동가 육성 사업은 부산광역시 마을만들기 조례에 의해 지원센터 사업으로서 ‘마을별 마을만들기 계획 수립 또는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동’을 규정하여 부산광역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에서 추진해왔으며, 2015년 도시재생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재단법인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로 통합 개소되면서 도시재생 지원센터로 이관되었다.

<표 3-7> 부산광역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사업내용 중 전문인력 양성

조항	내용
제15조 (지 원 센 터 의 설 치 등)	<p>① 시장은 마을만들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원센터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2. 마을별 마을만들기 계획 수립 또는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동 지원 3. 마을만들기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마을만들기 연구·분석 및 평가 5. 마을만들기 컨설팅 지원 및 모니터링 6. 주민 교육·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 7. 마을공동체 관련 단체·기관의 지원사업 8. 그 밖에 마을만들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출처 : 부산광역시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3) 교육 대상 및 프로그램

부산광역시는 2012년부터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형성에 필요한 인적자원의 확보를 목적으로 마을활동가 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수강생 모집 대상은 마을만들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 마을 주민, 대학생, 마을활동가 등으로 별도의 거주지 제한은 두지 않고 있다. 매 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모집을 실시하며, 한 학기 수강 인원은 대략 40~50명 정도이다.



2014 하반기 마을활동가 양성프로그램 교육생 모집

1. 대상
신청기간: 2014. 9. 22(월) ~ 10. 6(월)까지 신청하여 해당지역주민(주민등록상 주소지)인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주민으로, 마을공동체 활동에 관심이 있는 사람, 마을주민, 대학생, 마을활동가 등 교육대상: 부산광역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주무관(52175)으로
신청방법: 홈페이지(www.busanmmd.or.kr)에서 신청서 입력(2월 중, 하반기 또는 우편) 접수 가능

2. 교육프로그램

구분	주제	시간	장소
기초과정	마을만들기 기본교육	40	12.14-11.4(토, 일) 14:00 ~ 18:00
심화과정	마을·사회 혁신의 이해	30	12.14-11.4(토, 일) 18:00 ~ 19:00
심화과정	마을·사회 혁신의 이해	30	11.7-11.29(토, 일) 18:00 ~ 19:00
심화과정	마을·사회 혁신의 이해	30	11.8-11.29(토, 일) 18:00 ~ 19:00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busanmmd.or.kr)를 참조하시거나, 신청서 접수처(부산광역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021-7894-1000)로 문의하십시오.



<그림 3-7> 부산광역시 마을활동가 양성 프로그램

출처: 부산광역시청(<http://www.busan.go.kr>) 및 부산 사하구청(<http://www.saha.go.kr>)

활동가 양성 프로그램의 커리큘럼은 각 연도마다 조금씩 달라졌으나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나눌 수 있으며 마을이야기,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역사회 재생, 공간재생, 주민역량강화 및 거버넌스(갈등관리) 등 마을활동지원과 주민연계 퍼실리테이션, 사회적 경제에 관한 내용으로 분류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마을활동가 체계에 있어 교육과정 및 활동경력에 따라 예비마을활동가, 마을활동가, 마을코디네이터 등으로 분류하여 인증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예비마을활동가는 기초과정 및 유관교육 이수자, 마을활동가는 기초과정, 심화과정 1, 심화과정 2 또는 3의 이수자로서 2년 이상 활동경력을 가진 자 중에서 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마을코디네이터는 전문과정 이수 및 3년 이상 활동경력(행정지원사업 활동시 2년 이상)을 가진 자 중에서 심사를 통과하여 인증 받는다.

<표 3-8> 단계별 인증시스템 내용

단계	역할	내용
1단계	예비마을활동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과정 이수자, 유관교육 이수자 ※센터장 명의 인증서 수여
2단계	마을활동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인증 : 기초과정, 심화과정 I, 심화과정 II 또는 III(중 택1)이수자 ※센터장 명의 인증서 수여 •활동인증 : 2년이상 활동경력자 ※행정지원마을(5개사업 : 산복, 행복, 뉴딜, 좋은, 건강)은 활동경력 1년 이상 ※센터장 명의 인증서 수여 •최종인증 : 교육 및 활동인증 두 조건 충족자는 심사위원단에서 심사후 최종 마을활동가로 인증 ※시장 명의 인증서 수여
3단계	마을코디네이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인증 : 전문과정(세미나, 워크숍 등) ※센터장 명의 인증서 수여 •활동인증 : 3년이상 활동경력자 행정지원마을(5개사업 : 산복, 행복, 뉴딜, 좋은, 건강)은 활동경력 2년 이상 ※센터장 명의 인증서 수여 •최종인증 : 교육 및 활동인증 두 조건 충족자는 심사위원단에서 심사후 최종 마을코디네이터로 인증 ※시장 명의 인증서 수여

출처 : 부산광역시 도시재생과(2015), 마을활동가 인증시스템 가이드라인

<표 3-9> 부산광역시 마을활동가 육성 커리큘럼

연도	교육체계	커리큘럼	비고
2012	마을 활동가 육성교육	1) 마을전문가(리더)의 역할과 임무 2) 주민의사수렴과 결정방법 3) 마을만들기 사업계획 수립 4) 지역주민 갈등관리방안 5) 마을자원의 발굴과 이해 6) 도시재생과 마을만들기	총6강
	마을 활동가 역량강화 교육	1) 우리마을 이야기-지역마을 구술사 2)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이해 3) 지역사회와 재생과 공동체 회복 4) 마을공간재생 및 활용 4) 주민역량강화 및 지도력 성장을 위한 훈련 6) 주민참여의 제도적 활성화 방안	총6강
2013 · 2014	마을 활동가 기초과정	1) 마을만들기의 이해: 마을만들기란? 2) 마을활동가의 역할과 임무: 마을활동가의 자질, 마을활동가의 업무분야, 사업주체별 역할 3) 마을공간 재생 및 활용: 마을자원의 발굴, 마을자원 활용방법 4) 주민조직화 프로그램 1: CO방법론: 주민육구 파악하기, 자원조사, 욕구를 이슈화하기 5) 주민조직화 프로그램 2: 지역주민 갈등관리방안, 주민과의 대화 6) 마을만들기 사례소개 1: (사례)감천문화마을 7) 마을만들기 사례소개 2: (사례)매곡지마을	총7강
	심화과정 1: 커뮤니티 비즈니스 과정	1) 협동조합의 개념과 역사의 이해 2) 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 3) 마을기업 및 사회적 기업의 이해 -개념 및 제도의 이해 4) 사회적 경제 마케팅 전략 5) 사회적 경제: 세무 및 회계 6) 커뮤니티 비즈니스 우수사례 특강 7) 커뮤니티 비즈니스 운영과 리더십	총 7강
	커뮤니티 디 자 인 과 정	1) 커뮤니티 디자인 (개강식) 2) 커뮤니티 디자인의 필요성(도시, 건축 등 이론강좌) 3) 대상지 선정 후 마을돌아보기 4) 그림일기: 답사지도 그리기 5) 마을의 비전 정하기 6) 디자인 아이템 만들기(브레인스토밍) 7) 당신도 디자이너(마을디자인)	총 7강
	퍼실리테 이션과정	1) 3Keywords & 6 by 6 2) 월드카페: 집단토론 및 토론프로세스 3) 의사결정모델1: 타운 홀미팅 4) 의사결정모델2: 렛츠 컴퍼런스 5) 마을계획공유1: 이그나이트 준비 6) 마을계획공유2: 이그나이트 발표 7) 프로그램회고, 나에게 적용하기	총 4강

출처: 부산광역시청(<http://www.busan.go.kr>) 및 부산광역시 마을만들기 자원센터 (<http://www.busanmaeul.or.kr>)

(4) 향후 활용

부산광역시시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행복마을만들기 사업 등 도시재생사업에 주민갈등간리 및 의견수렴의 매개로서 마을활동가, 마을계획가 참여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공공재생사업에서 활동하는 마을활동가는 공모를 통해 초빙하며 사업 주체로서 활동하게 되는 경우 위촉계약을 통해 소정의 사업활동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2014년에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참여한 마을활동가의 수는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41명, 행복마을만들기 사업 14명, 커뮤니티 뉴딜 사업 15명 등이며 활동보수로서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월 70만원,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의 경우 월 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마을활동가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배출되는 마을활동가의 운영은 도시재생 운영센터의 도시재생 아카이브 내 마을활동가 풀을 구축하여 독자적 활동 및 네트워크 구축, 향후 도시재생사업 실시 시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인증시스템을 통해 인증 받은 인력에 있어서는 마을강사 활동 등 다양한 마을활동에 추천할 수 있다.

<표 3-10> 인증시스템 혜택

단계	인증시스템		활동혜택	비고
1단계	예비마을활동가	예비마을인증자	-	-
2단계	마을활동가	교육인증자	마을강사, 공모사업 선정시 인센티브 등	활동 후 경력인증
		활동인증자	마을강사, 공모사업 선정시 인센티브 등	활동 후 경력인증
		최종인증자	마을강사, 공모사업 선정시 인센티브 등	활동 후 경력인증
3단계	마을코디네이터	교육인증자	마을활동가 강사진, 공모사업 선정시 인센티브 등	활동 후 경력인증
		활동인증자	마을활동가 강사진, 공모사업 선정시 인센티브 등	활동 후 경력인증
		최종인증자	마을활동가 강사진, 공모사업 선정시 인센티브 등	활동 후 경력인증

출처 : 부산광역시 도시재생과(2015), 마을활동가 인증시스템 가이드라인

2) 청년활동가 양성

(1) 개요

2013년에 출범한 청년 서포터즈 ‘마실지기’는 노령층 인구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산복도로 마을에 대학원생들의 봉사활동을 계기로 청년마을활동가들을 점차 늘여 생동감 넘치고 활력 있는 사람 중심의 공동체회복 사업에 탄력을 부여하고자 시작되었다. 부산의 대학생들에게 마을만들기 기본소양에 대한 교육추진 후 ‘마을거점시설 활성화 활동’, ‘마을봉사활동’, ‘마을사업 회계지원’ 등의 마을활동을 추진하여 대학생들에게 부산 마을만들기에 대한 홍보 및 마을활동경험 제공한다.

(2) 제도 도입 배경

부산 마을만들기 사업의 마을거점시설 활성화를 위해 부산 대학생 100여명이 각자 전공에 맞게 재능기부하여 마을강사로 활동하여 침체 되어 있는 마을거점시설 등에 활기를 불어 넣고, 마을거점시설 홍보 판넬 제작 등으로 전시기회를 제공하여 마을만들기 사업을 적극 홍보한다.

(3) 교육대상

청년활동가 교육은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청년 서포터즈 ‘마실지기’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거점시설활성화, 재능기부, 봉사활동 등의 마을활동을 추진한다. ‘마실지기’는 부산 전역의 대학생 100여명을 공개모집으로 선발한다.

(4) 프로그램

청년들은 마을만들기 기본교육과 마을활동을 통해 예비마을활동가로 인증받는다. 마을활동가와 마을거점시설 활성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논의 후 대학생 재능기부 형식으로 마을교육을 진행한다. 행정·회계교육을 실시하여 청년활동가들의 역량을 함양하고 마을기업 등에 행정, 정산 업무 등 회계지원 활동 추진하며, 이들의 교육 및 활동기간은 하계 7월~8월, 동계 12월~2월로 구분하여 실시된다.

제2절 국외사례

1. 일본 기후현³⁾

(1) 개요

일본 기후현에서는 2002년부터 지역 커뮤니티 형성을 위해 주민으로 하여금 지역 과제를 발견하고 해결방안을 지원하는 전문적인 인재인 ‘기후현 커뮤니티 진단사’를 육성하기 위해 기후현 지사와 지역대학인 기후경제대학의 학장이 공동으로 인증하는 커뮤니티 진단인증시험제도를 창설, 운영하고 있다.

기후현 커뮤니티 진단사는 지역 커뮤니티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을 진행하고 그에 따라 나타나는 여러 과제에 대하여 지역 주민과 자치조직·지역 조직, NPO, 기업 등 지역 내 주체와 협력하여 과제를 해결, 개선하여 지역 커뮤니티의 재생과 활성화를 돕는 전문가를 지칭하며 2013년까지 255명이 진단사로서 인정되었다.

진단사로서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기후현청과 기후경제대학의 커뮤니티 만들기 전문가로서 등록되어 민간기업이나 복지시설, 시정촌에 소개되며 기후현 내의 복지, 환경, 교통, 주택, 환경보전 등 다양한 주제의 지역 과제 해결과 지역주민, 자치회, 지역회, NPO 등과 협력·연계하여 주민 자치의 마을만들기를 추진하는 전문가로서 활동하게 된다.

(2) 제도 도입 배경

기후현에서는 1998년에 현과 현 내의 국·공·사립 대학 등 교육기관 22곳이 연계하여 ‘국제네트워크 대학 컨소시엄 공동수업운영위원회’를 설립한 것을 계기로 하여 1999년부터 현과 지역 대학 연합체인 ‘네트워크 대학 컨소시엄 기후(ネットワーク大学コンソーシアム岐阜)’를 구성하고 공동수업, 단위호환제도, 사회인 공개수업 등 다양한 교육 및 지역 사업을 연계 시행하고 있다.

기후현 네트워크 진단사는 네트워크 대학 컨소시엄 기후의 사회인 공개수업 과

3) 본 연구자가 LH ‘도시재생전문가 자격제도 도입연구’ 과제를 위해 수행한 내용을 수정 게재하였음

정의 하나로서, 지역의 마을만들기 실시를 지원하기 위한 인재의 양성을 목적으로 창설된 커리큘럼·자격제도이다.

(3) 교육대상

기본적으로 커뮤니티 진단사의 자격 취득은 고교생 이상의 사회인⁴⁾으로 규정하고 있다. 2013년 현재 자격을 취득한 255명의 기후현 커뮤니티 진단사의 연령대는 10대 1명, 20대 30명, 30대 39명, 40대 24명, 50대 41명, 60대 66명, 70대 51명, 80대 3명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고령자의 비율이 높다.

(4) 프로그램

자격 취득 희망자는 매년 2회 실시되는 기후경제대학의 사회인 공개수업인 'NPO 커뮤니티론'을 수강하여야 하며, 수업은 각 회 당 약 15회차 총 30시간으로 구성되어있다.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대학에서 열리는 강좌에 직접 참석하거나 현 내 지자체에 설치된 E-러닝 회장에서 청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강좌의 수료 조건은 총 15회차 중 10회차 이상의 수업에 참석하여 각 강좌에서 출제된 과제를 주제로 레포트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며, NPO 네트워크론 수업의 수료 후 강의, 필드워크, 워크샵으로 구성된 실습강좌를 이수하여야 인정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NPO 네트워크론은 지역 커뮤니티와 공동체 유대감, 주민 자치와 지역 재생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4년의 수업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강의 수강에는 소정의 수강료⁵⁾가 필요하며, 기후경제대학 교원과 외부강사가 강의를 담당한다.

4) 연차에 따라 기후현 내 거주·재학·재직 중인 고교생 이상의 사회인(2013)으로 제한하거나 고교생을 제외한 사회인(2014)으로 한정하기도 했음

5) 수강료 조건은 일반적으로 5,000원으로 되어있으나, 고교생 무료, 첫 회 무료 및 2회차 이상 수강 시 5,000원, e-러닝 1,000원 등 연도에 따라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음

<표 3-11> NPO 커뮤니티론의 구성(2014년 상반기)

회차	강좌내용
1	지역과제의 해결 수법으로서의 “마을만들기”
2	커뮤니티 정책과 주민자치: 자치기본조례 주민자치조직 등의 “자치”의 조직화에 관한 과제
3	지방분권개혁을 둘러싼 과제: 헤이세이의 대합병에 관한 시정촌조사로부터
4	도시와 농촌의 공생
5	이벤트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평가 분석에 기반한 “마을만들기”
6	지역 유대의 재생을 목표로: 기후현의 대응 지역 커뮤니티 시책
7	고령화하는 커뮤니티: 주민 서로간의 협력에 의한 지역재생
8	함께 키우는, 키워가는 지역만들기: 어린이도 어른도 모두 지역의 일원
9	정주외국인의 지역에 기반을 둔 삶이란: 진정한 다문화공생사회를 목표로
10	누구나 주역이 되는 지역만들기: 종합형 지역 스포츠클럽 NPO로부터의 도전
11	자연 에너지로 변화하는 지역 커뮤니티
12	지역만들기와 생활 만들기(暮らしづくり)
13	지역의 “유대감”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14	지역을 연계하는 커뮤니티 트레이드
15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위하여

NPO 커뮤니티론 수강 이후 진행되는 실습강좌는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기후현 커뮤니티 진단사와의 대화를 통해 그 역할과 활성화 방법, 커뮤니티의 기본적 분석과 주민 참가 수법을 배우는 강좌⁶⁾ 이수, 제출된 테마⁷⁾에 대한 필드워크, 필드워크를 통해 조사된 내용을 KJ법⁸⁾에 의해 분석하는 워크샵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강좌 및 수업을 이수한 후에는 인정 시험에 응시해야 하는데 소논문 작성(50점 만점) 및 특정 테마에 대한 약 15분간의 집단 토론·그룹 면접(50점 만점)을 거쳐, 총점 60점 이상이 되어야 진단사로서 자격이 인정된다.

<표 3-12> 2014년도 기후현 커뮤니티진단사 자격인정 시험의 구성

시험과목	내용
필기시험	출제된 소논문 2-3문제에 관하여 회답. 시험시간 1시간, 논술식(50점)
집단면접	1그룹 당 10-15분의 집단면접을 실시하여 학습성과 확인(50점)

6) 2014년 1월의 강의 테마는 “커뮤니티 진단사의 역할과 활성화 방법”, “커뮤니티의 기본적 분석과 창조적 주민참여 수법”

7) 2013년의 주제는 ‘기후현 오오가키시(大垣市) 중심시가지의 매력과 과제, 도심 커뮤니티 재생의 방향’이 제출됨

8) KJ법은 동경공업대학 명예교수인 문화인류학자 카와키다 지로(Kawakita Jiro:KJ)가 고안한 데이터 분석 수법으로서, 데이터를 카드에 기술하고 카드를 그룹별로 나누어 해석하여 정리하는 수법을 말함

(5) 향후 활용

기후현 커뮤니티 진단사는 기후현청과 기후경제대학의 커뮤니티 만들기 전문가로서 등록되어 기후현 내 활동 및 기후현 지자체, 현 외에서의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지역현장연구,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계획 책정, 주민 주체의 마을만들기 활동 지도, 커뮤니티 만들기에 관한 상담 대응, 조사 연구 및 퍼실리테이터로서 활동하고 있다.

<표 3-13> 2014년 커뮤니티 진단사 활동 예시

구분	활동내역
현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학로 안전추진사업의 통학로 안전대책 어드바이저 • 기후현 유대강 재생에 의한 안전 안심의 지역만들기 조사연구사업 • 기후현 장기구상에 관한 현민 의견 교환회(현 내 4권역 개최) • 세이노권역(西濃圏域)의 체험 프로그램 개발사업 연구원 • 안전 안심 마을만들기 지역연계회의 워크숍 • 기후현 산림만들기 1000인 위원회 워크숍 • 현민협동선언 제정에 관한 일반현민 워크숍 및 현민협동선언 팔로우 업에 관한 일반현민 의견교환회
현 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오가키시 마을만들기 시민활동육성지원조례 시행 10주년 기념사업 워크숍 • 기후시 소셜 캐피탈 연구지원업무 • 미타케초(御嵩町) 고향만들기 검토위원회 • 기후현 건강장수재단의 오감건강법추진원 팔로업 특별연수회·워크숍 • 기후시 주민자치기본조례제정을 위한 의견교환회 • 가이즈시(海津市) 마을만들기 강좌 워크숍 • 아이치현 환락가 필드워크 및 워크숍 • 오오가키시 빛나는 라이트 응원 강좌 실시에 관한 업무위탁 • 오오가키시 지역커뮤니티의 진흥에 관한 조사연구업무 • 오오가키시 시민과 행정의 협동의 마을만들기 지침에 관한 시민 워크숍 운영업무 • 과소지역지원 대학 연계모델 사업위탁업무 • 공공시설에의 유니버설 디자인의 사인에 관한 조사연구업무 • 오오가키시 제3차 남녀공동참여플랜 책정에 수반한 시민의식조사 및 기업실태 • 기후시 종합계획제정을 위한 시민의견교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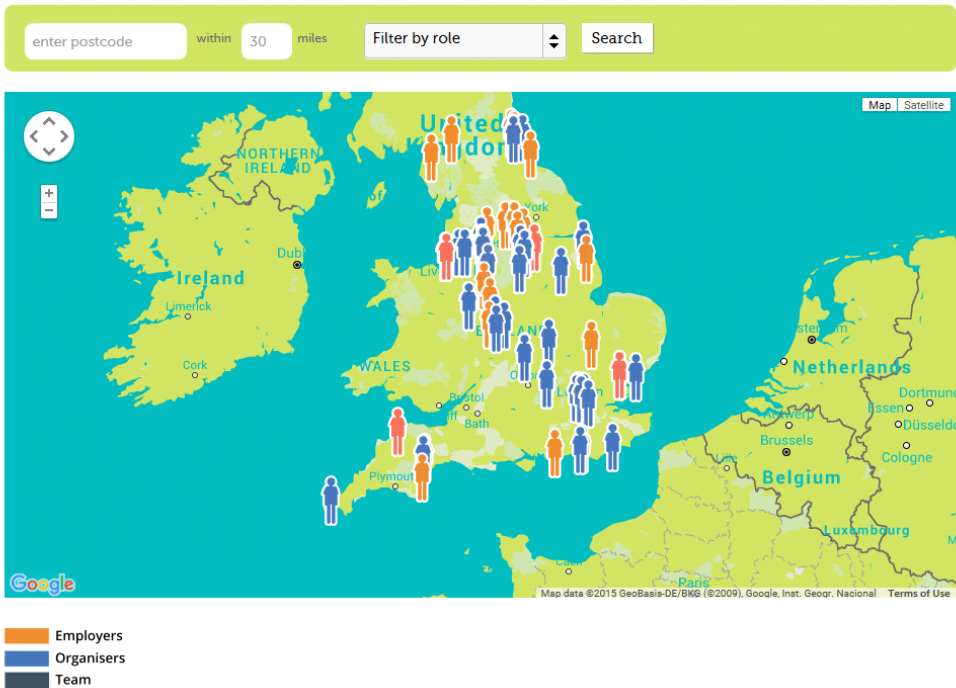
출처: 기후현 홈페이지 (<http://www.pref.gifu.lg.jp/>)

2. 영국

(1) 개요

영국에서는 2011년 부터 지역사회의 공동체를 조직하고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국영 프로그램인 Community Organisers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커뮤니티 오거나이저는 지역주민이 해당 지역의 문제에 대해 실질적으로 행동을 취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프로젝트 구성, 캠페인 활동, 정책입안, 저소득층 지원 등의 역할을 하며, 커뮤니티 오거나이저의 조직 범위는 영국 전역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 내 Organisers(조직자)와 Employer(고용 기관)들을 찾을 수 있다.

Find us in your area



<그림 3-8> 커뮤니티 오거나이저 매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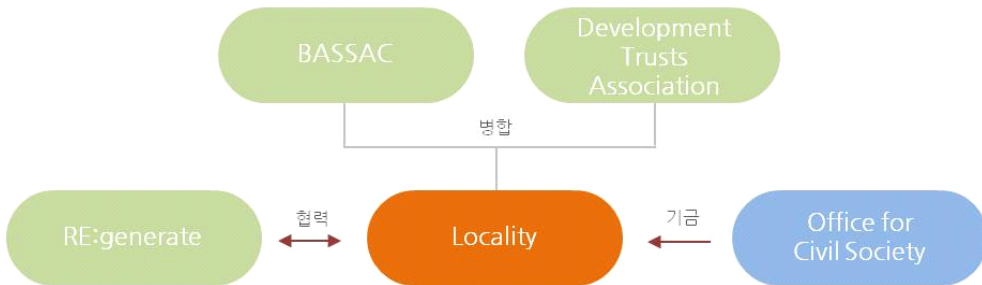
출처: Community Organisers 홈페이지(<http://www.corganisers.org.uk>)

커뮤니티 오거나이저가 조직된 이후 2015년까지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1,000명 이상의 사람이 지원하였으며, 제도를 통해 이중 540명을 커뮤니티 오거나이저로 고용하고 15,000명의 자원봉사자를 지원했으며 100명의 고용기관에게 관련 기금을 제공했다. 또한 커뮤니티 오거나이저의 활동은 2015년 현재 125,000명의 주민, 1,500개의 커뮤니티 프로젝트, 400개 근린지역, 150개 호스트를 위해 활동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커뮤니티 오거나이저 프로그램은 오거나이저 활동교육과 교육 수료 후 커뮤니티 조직과 관련된 일을 지속적으로 하고자하는 사람들에게 상위 교육과 멘토링을 제공하여 시니어 오거나이저(Senior Organisers)를 양성하며, 또한 업무지원, 정기적인 의사소통, 조직자를 위한 고용 중개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영국 내 커뮤니티 조직에 대한 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프로그램 운영은 영국의 공동체 기업 연합인 로컬리티(Localcity)가 영국 국무조정실(Cabinet Office)의 시민사회부(Office for Civil Society)에서 기금을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 여름부터는 Community Organisers Ltd(Co)가 독립된 기구로서 커뮤니티 오거나이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그림 3-9> Locality 관계도

(2) 제도 도입 배경

로컬리티는 BASSAC⁹⁾와 Development Trusts Association¹⁰⁾(DTA: 개발 신

9) BASSAC은 1880년대 산업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는 세틀먼트 운동을 바탕으로 하는 조직으로 1920년 주거지 연맹(Federation of Residential Settlements)으로 시작하여, 1978년 British Association of Settlements and Social Action Centres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영국에서 정착운동을 펼침

10) Development Trusts Association은 1993년에 설립된 마을만들기 연합으로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 양성에 힘씀

탁 협회)가 병합하여 2011년 창설된 단체이다. BASSAC과 DTA는 창업, 콜라보레이션, 지역사회 자산 소유권 및 커뮤니티 개발에 대한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를 지역 사회 단체에 지원하는데 함께 노력했다. BASSAC과 DTA는 사무실을 공유하였고 그 후 자연스럽게 합병되어 현재 로컬리티의 본사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현재 로컬리티는 지역 사회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있으며, 500개의 조직과 200명의 연합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지역 공동체의 매입 비용이나 리모델링 비용을 마련하는 과정을 돕고, 정부 보조금, 투자 기금, 기부금 등과 연결하는 것을 주된 활동으로 하고 있다.

2011년 영국 국회에서 시민과 지역사회에 더 많은 의사결정 권한을 양도하는 ‘지역주권법(Localism Act)’이 제정되면서 로컬리티의 활동은 탄력을 받게 되었다. 이 법은 지역에서 가치가 있는 자산이 매각될 때, 처분을 즉각적으로 하지 않고 보호기간, 임시 유예 기간, 전제유예기간 등을 두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표 3-14> 지역주권법 시행령 일부 내용

연번	시행령	내용
1	Community right to bid	지역의 의미 있는 건물이 매물로 나오면 판매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키고, 공동체에서 건물을 사들여 공동으로 운영 할 수 있음
2	Community right to build	마을공동체가 새 상점이나 주거 시설들을 만들 수 있도록 복잡한 건축 절차 완화
3	Neighbourhood planning	지역 주민들은 마을의 개발 계획에 참여하고, 결정할 기회를 가짐
4	Community right to challenge	지역 주민 스스로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지역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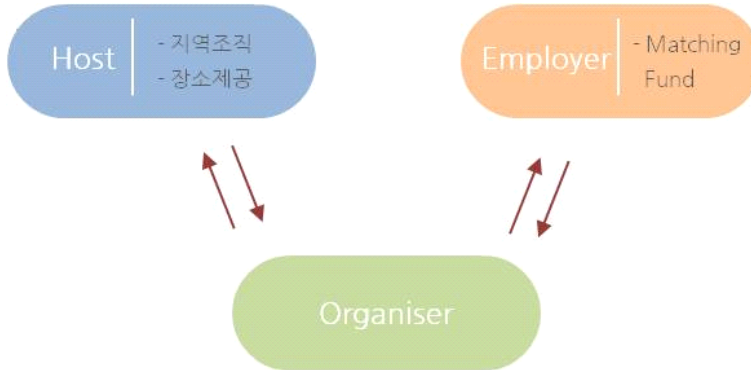
출처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홈페이지 마을공동체 운영사례(<http://www.dongjak.go.kr>)

(3) 대상 및 프로그램

커뮤니티 오거나이저는 Organiser(조직자)에 지원하는 대상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며,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을 위해 홈페이지에 이름, 이메일 주소, 관심 있는 주제를 남기면 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커뮤니티 오거나이저 프로그램은 호스트(Host, 장소제공자), 고용자(Employer),

오거나이저로 구성된다. 호스트는 지역조직으로서 오거나이저의 교육기간 동안 기금을 지원해주며 작업 공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고용자는 오거나이저를 고용하는 기관으로서 새로운 오거나이저를 고용할 경우 최대 £15,000(약 2,46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받으며, 고용기관이 £15,000을 부담하여 최대 £30,000의 예산을 창출할 수 있다.




<그림 3-10> Community Organisers 관계도

커뮤니티 오거나이저는 홈페이지에 고용자 리스트를 볼 수 있도록 하여 오거나이저가 쉽게 고용자를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리스트업 되어 있는 고용자로는 이민자 정착 지원, 성인 영어 교육, 노숙자 자립 지원, 기술 및 유급 고용 개발 지원, 예술단체 등 그 범위가 다양하다.


Meet employers

Name Postcode Search



Europaia
Employer
Location: Manchester
Europaia's mission is to provide information and practical support to European migrants and citizens in Greater Manchester in order to promote their full participation in British life.
Europaia works mainly in Salford, Tameside and Manchester areas of Greater Manchester. We have slowly started developing our work Stockport and Oldham as well. Please click on your area of choice to find...
[visit profile](#)

[email me!](#)
[add to bookmark](#)



English for Action
Employer
Location: London
English for Action run free ESOL (English for Speakers of Other Languages) courses for adults in London.
We have a unique pedagogy and years of experience delivering accessible community ESOL. Our approach blends participatory adult education and community organising.
We support our participants to take action to improve their lives and their communities.
[visit profile](#)

[email me!](#)
[add to bookmark](#)

<그림 3-11> 고용자(employer) 리스트

출처 : Community Organisers 홈페이지(<http://www.corganisers.org.uk>)

오거나이저는 지역 커뮤니티에서 12개월 동안 교육을 받은 후 활동할 수 있다. 전일 교육생(Full-time trainees)은 교육기간 동안 급여를 받게 되고, 경비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온라인으로 세미나 및 단체학습 등이 진행되기 때문에 거주지에 구애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교육 시작 후 6개월 동안은 핵심기량으로 경청(deep listening), 자원봉사자 모집, 그룹 활성화, 데이터 분석, 디지털 통신(digital communication) 등에 대해 배우며, 그 후 네트워크 개발, 리더십, 튼튼한 기반 만들기 등 미래에 대한 계획과 활동으로 교육이 이어진다.

핵심 기량이외에도 지역자산, 기업, 디지털 조직, 지역사회 갈등 관리, 지역사회 조직의 역사와 이론, 지역사회 변화의 과정 등 추가적인 옵션을 선택하여 교육받을 수 있으며, 모든 교육생은 OCN(Open College Network; 지역사회 조직) 인증서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교육은 교육파트너의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된다. 상위 교육 파트너는 Re:generate이며, 기타 교육 제공처로는 Community Resolve, OSCA, Locality, Inspiration Network 등이 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은 전국 15개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6개월간 OCN 과정에 기초한 인증된 교육을 받는다. 자원봉사자들은 해당 교육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오거나이저에서 제공하는 대부분의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4) 향후활용

대부분의 전일 교육생들은 교육 수료 후 시니어 오거나이저 프로그램을 이어서 받는다.

Progression은 1년의 기초과정을 끝낸 오거나이저의 2년차 과정을 이른다. 1년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졸업생의 50% 이상이 CO Progression Grant¹¹⁾를 받아 2년차 과정에 진급한다. 교육생의 일부는 교육기간동안 본인의 지역이나 조직에서 일하며, 2년차 과정에 진급하지 않은 졸업생은 새로운 지역에서 일을 시작한다. Progression을 수료한 졸업생들은 대부분 이웃과 마을의 재산을 조직화하는 등

11) CO Progression Grant는 새롭게 자격을 부여받은 Community Organiser의 고용에 필요한 기금의 절반을 지원(£15,000; matching fund임)해주는 제도

커뮤니티에서 광범위하게 활동한다.

Third Year Progression은 'Progression'의 다음 과정이며, 이 과정 역시 교육생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표 3-15> Community Organisers 제도

단계	Community Organisers	Progression	Third Year Progression
명칭	Trainee	Senior Organisers	-
해당 연수	1년차	2년차	3년차
지원내용	최저 생활 임금	보조금 지원	보조금 지원

위의 과정에 진학하지 않고 1년의 교육을 받고 졸업한 커뮤니티 오거나이저는 자신이 속한 커뮤니티에 자발적으로 봉사하거나, 새로운 교육생의 멘토로 활동한다.

제3절 소 결

3장에서는 재생사업에 있어 커뮤니케이션, 갈등관리, 도시재생에 관한 이해를 갖춘 중간조력자의 역할에 대하여 교육 및 활용 체계를 구축한 국내외 사례를 중심으로 조사 분석하였다.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등 국내 사례의 경우 지자체 조례를 통해 활동가의 양성을 지원센터의 역할로서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지자체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행정과 주민 사이의 소통 역할, 주민의견 수렴과 거버넌스 형성 역할자로서의 활동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커리큘럼에 있어서도 도시재생, 마을활동, 공동체 등 활동 내용상의 이해와 함께 민관 거버넌스, 의사소통, 지원 절차 및 보조금 집행, 상담역할 등 실질적인 지원역할에 대한 내용이 강조되면서 활동가 양성 프로그램을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과 다른 위계에서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활동가의 양성을 청년 등의 일자리와 연계시켜 지역 베이스의 일자리를 양성하는 것과 동시에 청년층의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거나(마을로 청년활동가), 실질적으로 갈등관리, 대안전략이 필요한 재개발 해제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재생을 활성화시켜 도시재생사업으로의 전환을 도모하는 등 도시재생 전문인력의 양성과 사회적 과제를 종합적으로 풀어나가고자 시도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경제적, 물리적 측면 모두를 종합적으로 재생하고자 하는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을 생각했을 때에도 적합한 전략이라 볼 수 있다.

일본, 영국 등 국외 사례에 있어서는 지역 대학, 지역 기업 등 지역 내 민간단체, 활동인력의 대상을 지역 내 다양한 연령층으로 모집하는 등 등 지역에서의 여러 주체를 연계시키고자 하는 점과 인증, 검정, 학습 커리큘럼 등에 있어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전문성을 향상시키고자 한 점, 그리고 지속적인 지역사회로의 투입·활용과 활동에 대한 보상을 수반하여 활동가의 위치를 어느 정도 ‘직업’으로서 두고자 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여러 사례에서 비교적 동일하게 나타나는 체계적인 양성 프로그램과 교육 프로그램 이수에 대한 인증제도, 지속적인 보수교육, 그리고 일자리와의 연계 등은 다소 엄격하게 느껴질 수 있으며 3장의 설문조사의 결과에서도 나타나듯 자율

성에 대한 반론을 예상할 수 있으나, 이는 또한 책임감과 전문성, 지역 밀착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장치이며, 관련한 논의를 통해 지원제도에 관한 합의를 도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
■
인천광역시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기반인력 양성 정책 현황 및 발전방안

A study on current community organizers training policy and development
direction for Improving effectiveness of participatory urban regeneration
projects in Incheon

제4장

인천광역시 참여형 도시재생 정책 동향 및 인력 양성 현황분석

제1절 인천광역시 주민참여 도시재생
정책 추진 현황

제2절 인천광역시 마을활동가 활동 현황 및
의식 조사 특성

제3절 소결

제4장 인천광역시 참여형 도시재생 정책 동향 및 인력 양성 현황분석

제1절 인천광역시 주민참여 도시재생 정책 추진 현황

1. 인천광역시 도시재생 추진개요

1)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조례

인천광역시는 시민이 주인이 되는 거버넌스 행정의 구현,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살기 좋은 마을로의 성장을 위해 지역 마을공동체의 정책적 지원 방향으로 2013년 5월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같은 해 5년 단위 기본계획인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주민 자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였다.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는 총 28개 조항¹²⁾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정의와 책무 등 기본사항,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지원 및 신청과 같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및 마을 공동체의 육성 및 활성화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표 4-1>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주요 내용

목적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행·재정 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추진의 안정적 토대 정립
주요내용	목적·정의·주체별(시·구·종합지원센터) 역할,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수립과 연차별 시행계획에 관한 내용, 인천광역시마을만들기 위원회 구성·운영방법·기능·역할,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방법·업무내용, 마을만들기 사업범위·지원방법·사업분석 및 평가 등

출처 :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국(2013),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만들기 기본계획

12) 조례 제정 당시 26개 조항으로 구성됨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에 의하여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으로서 2013년 수립된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은 ‘사람(주민)-마을-공동체’를 기본 개념으로 하여 마을공동체를 만드는 다섯 가지 기본 원칙 및 5대 마을공동체 전략,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전략 등을 통해 주민 공동체를 회복하고 주민이 스스로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구상하였다.

»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원칙

원칙

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 지향

원칙

2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

원칙

3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 존중

원칙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한 추진

원칙

5 환경과의 조화와 차세대와의 공영 지향

<그림 4-1>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원칙

출처: 인천광역시(2013),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시민설명회 자료집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및 주민에 의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실질적인 방안이 되는 5대 마을공동체 전략은 물리적 기반조성(함께 가꾸는)과 인적 역량강화(함께 배우는) 외에 '일(함께 일하는)', '돌봄(함께 돌보는)', '문화(함께 즐기는)' 분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와 관련된 단체, 기관에 대한 여러 지원 사업 및 이러한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민·관·학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궁극적으로 교육, 학습, 네트워크가 마을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3년부터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인천광역시 주거환경정책과 소관으로 설치된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에서는 기본계획의 전략 및 방향을 기초로 재개발 해제지역이나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찾아가는 마을컨설팅,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교육사업, 주민, 마을활동가, 마을리더, 공무원 등 주체별 맞춤형 교육사업, 마을활동의 전반적인 상담 지원사업, 마을 자치역량 강화사업 등 마을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에 관한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인천광역시에서 주민 공모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마을 공동체만들기 사업에서 사전 설명회, 교육 및 컨설팅, 평가를 담당하고 있다.



<그림 4-2> 5대 마을 공동체 전략

출처: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http://www.incheonmaeul.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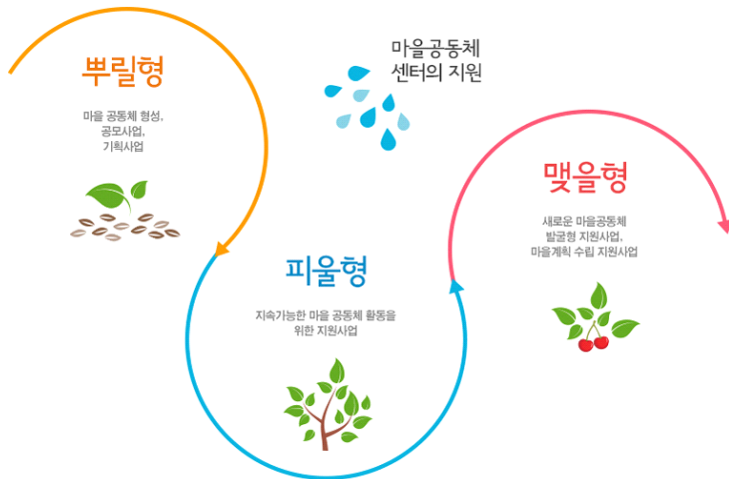
<표 4-2> 공동체 사업 지원 분야

구분	사업분야	내용
정기 공모	일반 지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인문학 강좌 •마을공동체 리더십 훈련을 위한 학습 •마을기업,협동조합,지역화폐 등 사회적경제 학습 •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자치회 등 제도학습 •마을공동체 이해와 우리마을 알기, 의제발굴 학습 •청소년 활동을 위한 학습지원, 청소년 진로학습지원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습 •좋은 부모 되기 모임 학습 •마을미디어, 마을도서관 만들기, 마을신문 만들기, 마을축제 구성하기,커뮤니티공간 만들기를 위한 준비학습 등 문화콘텐츠 학습 •아파트예산 쓰임새 학교 •기타 마을에서 필요한 학습 •영유아,어린이: 공동육아, 품앗이교육, 돌봄이 필요한 어린이관련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 지역어른(청년)과 청소년이 함께하는 소통 활동 •여성: 여성이 안전한 마을만들기 사업 •노인: 마을과 노인의 삶, 생애사 쓰기 등 노인과 함께 하는 활동 •마을기업, 협동조합, 공유경제, 지역화폐, 도시농업, 플리마켓 등 마을 주민이 주도하는 사회적경제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통시장, 상가활성화를 위한 상인협동 사업 •재활용 물품을 활용한 리폼활동 •청년활동가 일자리 만들기 콘텐츠개발 사업 •마을축제를 통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커뮤니티 공간(북카페, 사랑방, 마을도서관, 청소년공간)의 마을역사,문화,예술 등을 매개로 한 프로그램 •마을의 역사를 토대로 한 마을 이야기 책 발간, 마을 이야기 영상물 제작 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커뮤니티공간 조성(마을도서관, 북카페, 품앗이 공간 등) •주거환경개선(골목길다듬기, 공가리모델링, 쓰레기분리수거 등) •녹지공간 및 생태학습장(한뼮공원, 옥상텃밭, 마을공동텃밭 등) •보행환경개선(안전한 통학로, 보행자 우선 환경 만들기 등) •에너지자립마을 만들기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파트공동체 지원사업 •일반 지원사업과 내용 동일
수시 공모	주민모임 만들기 지원사업	•주민회의, 주민소모임 만들기 등 주민모임 형성 지원사업
	주민조직 만들기 지원사업	•원도심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조직 형성 지원사업
	네트워크 만들기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복지관, 주민자치센터, 마을도서관, 지역아동센터, 학교 등 지역내 네트워크 만들기과 공동사업 지원 •이웃마을과의 네트워크지원

출처: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http://www.incheonmaeul.org>)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2013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은 첫 공모연도인 2013년도에 43개 사업, 2014년 69개 사업을 선정하여 사업 내용에 따른 예산 지원 및 행정지원 등을 실시하였다. 예산범위는 2013년도 4억 원, 2014년도 3억 2천만 원이며 사업 당 평균 약 4백만 원이 지원되었다. 주요 추진 내용은 마을환경조성, 주민교육, 벽화 조성, 새터민 사회 적응 및 취업지원, 공방 및 제작교실, 벼룩시장, 마을축제 등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주민 간의 교류를 위한 프로그램 등으로 실시되었다.

2015년부터는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마을공동체 형성사업(뿌릴형)과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는 마을공동체 활동사업(피울형)으로 각 사업 성격에 따라 분야를 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12개 뿌릴형 사업과 19개 피울형 사업 등 총 31개 사업을 선정하여 진행 중에 있다.



<그림 4-3> 공모사업 유형별 분류

출처: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http://www.incheonmaeul.org>)

<표 4-3>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사업추진실적

	2013	2014	2015
추진사업수	43	69	29
참여주민수	-	1004	323
비고	※ 자치행정과 직접사업		

출처: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http://www.incheonmaeul.org>)

2) 저층주거지 정비사업

201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단독 다세대 주택의 밀집지역에서 기반시설 정비 및 공동시설 확충을 통해 노후한 주거 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는 사업방식으로서, 원칙적으로 주민이 스스로 주택 등을 개량하고 공공이 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주민 중심의 생활환경 개선사업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2013년부터 실시된 인천광역시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은 이러한 주거환경 관리사업의 방식을 기본으로 하는 사업이며, 재개발 재건축 사업 등 기존 전면철거 도시정비방식에서 벗어나 원도심 지역 내의 주민 커뮤니티를 고려하고 주민이 스스로 마을계획을 세워 노후 주거환경과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며 행정이 이를 지원하는 형식의 사업으로 말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의 사업범위는 원도심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정비 및 설치, 주민 지원 및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 공동이용시설 설치·확충 외에 마을환경 및 안전개선사업, 담장허물기, 에너지 절감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사업으로서, 주민 제안 방식 등을 통해 2013년도 선



<그림 4-4>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도입

출처: 이왕기(2013),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주민참여 사례연구, 인천발전연구원

도 사업으로 6개 구 8개 선도사업, 2014년도 추진 사업으로 8개 구 13개 사업을 선정하였다. 총 사업비는 선도사업 451억 원, 2014년 사업 391억 원¹³⁾으로, 현재 2013년 선도 사업의 경우 정비계획 수립 및 토지 보상 협의과정이 진행 중이며 2014년 사업은 사업지역 주민협의체 구성 및 정비 계획 수립 중에 있다.

특히 선도사업의 내용 중 마을의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고 주민과 주민조직의 경제적, 사회적 거점이 될 공동이용시설 설치에 있어서는 북카페, 썸지공원, 커뮤니티 센터, 경로당, 회의실 등 지역 여건에 따라 다양한 시설이 계획되어 향후 지역주민의 활동의 장 및 지역 커뮤니티를 위한 시설로서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을 통해 설치되는 공동이용시설의 관리 운영의 경우 기간 등의 이유로 지역주민에 의한 관리 및 운영 방안에 있어서는 의견수렴 및 체계구축이 미진한 부분이 있으나, 향후 시설의 관리 운영에 있어서는 점진적으로 주민 참여형으로 관리 운영하도록 하여 자율적인 공간운영, 지역대표성 및 지속성을 담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표 4-4> 인천광역시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추진 경과

구분	연도	사업 추진 경과
2013년 선도사업	13. 04.	원도심 활성화 추진단 자문. 사업대상지 확정(6개구 8개 사업)
	13. 05.	사업시행계획 수립(구비 10%)
	13. 07.	사업예산확보
	13. 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주거환경관리사업)
	14. 02.	정비계획 수립 용역(진행)
2014년 사업	13. 07.	주민 제안 공모를 통해 사업 계획 접수(8개 구 23개 사업)
	13. 10.	원도심 활성화 추진단 자문. 사업대상지 확정(8개 구 13개 사업)
	13. 12.	사업예산 확보
	14. 02.	주민 협의체 구성, 정비 계획 수립 준비(진행)

출처: 윤혜영(2014),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공동이용시설 활성화 방안, 인천발전연구원

13) 인천광역시(2014), 제 9차 원도심 활성화 추진단 자문회의

3)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및 추진

쇠퇴지역의 물리적 환경개선 뿐 아니라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경제적 빈곤, 복지 및 기타 사회문제와 노후지역의 경제적 재활성화 등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2013년 제정된 ‘도시재생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은 주민과 지자체 중심으로 쇠퇴도시의 재생계획을 수립하면 국가는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담당하는 법·제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법이다.

본 법에 의해 지자체가 반드시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은 그 내용으로서 주민 협의체 구성 및 협의체 주도의 재생사업 실시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림 4-5>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위계

출처: 인천광역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설명 자료를 재수정

인천광역시에서는 2015년 2월부터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추진하면서 그 진행 과정에서 각 군구 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해 2015년 7월부터 온라인 의견 수렴 게시판을 개설하고(2015.07) 각 군구별로 주민 워크숍을 개최하여 도시재생 전략계획의 취지를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소통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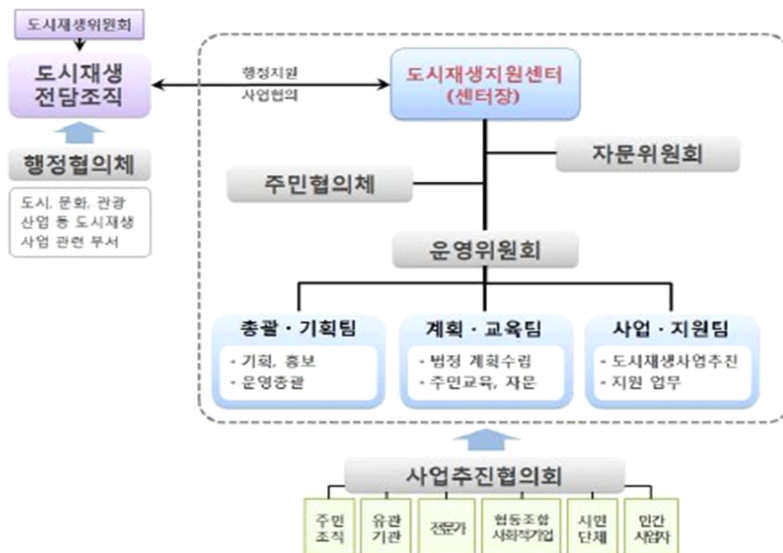
<표 4-5> 전략계획 수립과정에서의 주민의견 수렴

일자	내용	비고
2015.05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제 1차 군구간담회 개최	옹진군 제외 9개 군구
2015.06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워크숍 개최 협의	
2015.07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워크숍 개최 준비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온라인 시민광장(게시판) 개설	
2015.08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포커스 그룹 간담회 개최	마을활동가 대상
2015.08~ 2015.09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마을리더 워크숍 개최	1차: 중구, 동구, 남구, 남동구 2차: 부평구, 서구, 계양구, 연수구
2015.09	전문가 및 시민의견 설문조사	
2015.09~ 2015.10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워크숍 개최	옹진군 제외 9개 군구
2015.10	주민워크숍 결과보고회	
2015.10~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2차 군구간담회 개최	남구, 동구, 부평구, 강화군, 연수구, 중구, 계양구 (도시재생활성화 구역 1차 지정지역)

인천광역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및 각 지정지역 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도시재생 방향 설정 및 향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의 주민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도시재생 사업의 지원 및 도시재생 대학 등 교육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주민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자 하고 있다. 또한 도시재생 특별법에 의해 인천광역시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인천광역시 군구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및 도시재생 사업 추진을 지원할 예정에 있다.



<그림 4-6>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과정
(출처: 도시재생 전략계획 주민간담회 준비모임)



<그림 4-7>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조직구성(안)

출처: 조상운·김영은(2014),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및 도시재생 조례 규정에 관한 연구, 인천발전연구원

4) 인천광역시 군구 주도 정책 및 사업

인천광역시 군구가 주체가 되어 추진한 주민 참여형 도시재생 제도 정책은 도시만들기 조례, 마을만들기 조례 등을 제정하여 주민 참여의 마을만들기, 도시재생 활동을 지원한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부평구에서 2005년 우리 마을 가꾸기 사업운영 및 지원조례를 제정한 것을 시작으로 볼 수 있는데, 마을만들기 관련 조례의 제정이 전국적으로 크게 부각되지 않았던 시기에 조례를 통해 주민공동체 주도의 소규모 마을가꾸기 사업을 공모, 구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하여 주민자치 기능 강화와 지역공동체 형성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2015년 현재 인천광역시 내 10개 군구 중 강화군, 서구를 제외한 8개 군구에서 마을만들기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 중에 있으며, 특히 2013년 인천광역시 조례 제정 이후 계양구, 중구, 옹진군 등에서 마을만들기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자치구 차원에서의 지원활동이 꾸준히 전개되고 있다.



<그림 4-8>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조례 현황

<표 4-6>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조례 현황

구분	조례명	제정일
부평구	우리마을 가꾸기 사업운영 및 지원조례	2005.10
부평구	부평구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지원조례	2009.11
연수구	연수구 행복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2012.06
동구	동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2012.11
광역시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2013.05
남구	남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2013.07
남동구	남동구 행복한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2013.12
계양구	계양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2014.03
중구	중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2014.08
옹진군	옹진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조례	2014.08

인천광역시 남구의 경우 조례 제정 이전인 2011년과 2012년에 주민참여 마을 만들기 시범사업을 진행했으며, 2013년 남구 마을만들기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마을만들기 전담팀 구성 및 2014년 학산마을 협력센터를 개소하여 마을만들기 교육 및 컨설팅, 자체 사업인 학산마을 공모사업(통두레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광역시 남구의 통두레모임지원사업은 마을에 관심을 높이는 사업, 이웃관계 형성에 필요한 사업,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한 사업을 대상으로 상시접수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선정될 경우 마을공동체 이해, 사업계획 방향, 역할 등 기본교육 진행 후 사업당 1천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2014년 21개동에 57개 통두레 모임이 구성되었으며 859명이 참여하여 마을경관개선사업, 마을학교 등 강좌 및 교육, 마을방법 및 순찰, 마을공방을 통한 제작 판매 사업 등을 진행하였다.



<그림 4-9> 통두레 사업

출처: 인천광역시 남구 홍보블로그 통통통 남구(http://blog.naver.com/tong_namgu)



<그림 4-10> 인천광역시 주민참여 도시재생 정책 추진 현황

2. 도시재생 기반인력 및 주민역량강화 지원

인천광역시 내에서 주민역량강화와 마을활동전문인력 양성에 관련된 초기 활동 으로서는 2008년 부평의제 21추진협의회(마을자치분과) 에서 추진한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를 위한 우리동네 주민자치대학'을 들 수 있다. 2008년 11월 25일부터 12월 9일의 2주간 주민자치센터와 자치위원의 역할과 이해, 우리동네 비전만들기 등 공동체활성화에 관련하여 총 5회의 강의과정을 개설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 주민, 관련공무원, 부평의제 21 관계자 등 70여명 참여자 중 32명이 수료하였다.

2회 부평구 주민자치대학은 2009.11월 4일부터 26일까지 약 한 달간 지역공동체, 마을, 마을리더를 주제로 한 4강의 강의로 구성되었으며 부평지역 주민자치위원회 위원회장 및 위원 중심의 참여에서 열린 강좌로 전환하여 진행되었다. 또한 동네 리더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마을(동네)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한 점을 알 수 있다.

<표 4-7> 2008~2009 우리동네 주민자치 대학 커리큘럼

분류	일자	커리큘럼	비고
2008 우리동네 주민자치 대학	11.25	입학식/주민자치센터의 이해와 주민자치의원	주민자치위원 중심
	11.27	부평구청 알아보기, 우리동네 비전 만들기	
	12.01	안산시 좋은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안산시 선부2동 마을만들기 우수사례	
	12.02	주민자치와 아파트자치/청천2동 주민자치위원회 우수사례	
	12.09	우리동네 우리가 바꾸자/수료식	
2009 우리동네 주민자치 대학	11.04	지역공동체성 회복과 인문학	주민자치위원 포함 열린강좌
	11.11	동네에서 리더로 산다는 것	
	11.18	마을의 재발견- 마을의 자원과 문제분석	
	11.25~26	마을속의 삶을 연찬하다	

출처 : 인천광역시 부평구청(<http://www.icbp.go.kr>)

2010년에는 국토해양부가 주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부평의제21 실천협의회 및 인하대학교가 상호 협력한 '부평구와 함께하는 2010 인천권 도시대학'이 개최되었다. 커리큘럼은 스튜디오형 프로그램으로서 주민이 스스로 지역을 살고 싶은 도시로 가꿔나갈 수 있도록 도시계획의 관점에 중점을 두었으며 6개 팀 48명이 수료하였다.

2011년에는 부평구 주관으로 ‘녹색마을만들기 인재 양성과 시범사업 아이디어 발굴’이라는 목표 아래 인천도시대학이 약 2개월에 걸쳐 진행되었다. 커리큘럼은 부평구와 마을만들기를 주제로 특강과 실습형의 총 8강의 교육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5개 팀 55명이 수료하였다.

<표 4-8> 2010 인천주민자치대학 및 2010 인천권 도시대학 커리큘럼

분류	일정	주제	내용	비고
부평구와 함께하는 2010 인천권 도시대학	09.04	도시대학 입학식 및 특강	도시와 건축 2010 인천 도시대학 프로그램	도시 대학 우수 사례 대상, 장려상 수상
	09.05	특강 및 현장답사	도시설계의 개념과 이해 도시분석방법론에 대한 이해	
	09.11	특강 및 팀별 프로젝트 진행	도시경관의 이해 주민참여를 통한 마을만들기	
	09.12	특강 및 우수사례 현지답사	장소만들기 문화도시만들기 우수사례 현지답사	
	09.18	중간발표 및 크리틱 진행	팀별 프로젝트 모임 중간발표 및 크리틱 팀별 프로젝트 피드백 진행	
	10.09	특강 및 팀별 프로젝트 진행	저탄소 녹색성장과 친환경 건축 미술문화공간을 매개로 한 도시재생	
	10.16	특강 및 팀별 프로젝트 진행	마을만들기 도시대학 우수사례 소개 도시만들기 지원센터의 역할과 과제	
	10.23	최종발표 및 도시대학 수료식	최종발표	
부평구와 함께하는 2011 인천 도시대학	11.02	입학식 및 특강	문화도시와 거버넌스 부평구 도시형성의 역사	-
	11.09	특강 및 실습형 교육	2011 인천도시대학 프로그램 소개 마을만들기 경관협정사업의 가능성	
	11.16	특강 및 실습형 교육	마을만들기사업의 실현방안 부평구 마을만들기의 이해	
	11.23	중간점검 및 집중워크숍	마을만들기 심계명	
	11.26	수도권 우수사례 답사	성북구 장수마을 현장답사	
	12.03	특강 및 실습형 교육	주민참여와 마을만들기	
	12.04	특강 및 실습형 교육	기본계획 점검 및 최종발표 준비	
	12.07	성과물 평가 및 수료식	최종발표 및 평가/수료식	

출처 : 인천광역시 부평구청(<http://www.icbp.go.kr>)

2013, 2014년도에는 국토교통부 주관의 수도권 도시대학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어 2013년도에는 중구, 2014년도에는 동구에서 개최되었다. 프로그램은 2011년부터 수도권 도시대학 프로그램의 형식인 6주 8강의 일정으로서, 10개 특강과 도시설계형 스튜디오 복합 방식의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인하대학교가 주관하고 여러 도시재생 연구자 및 마을만들기 민간 전문가가 특강을 진행하는 형식을 갖추고 있다. 2013년 도시재생대학은 6개 팀 78명, 2014년은 6개 팀 86명이 수료하였다.

<표 4-9> 인천 중구와 함께하는 2013 수도권 도시재생대학 커리큘럼

분류	일정	주제	내용
인천광역시 (중구)와 함께하는 2013 수도권 도시재생 대학	10.20	입학식 및 특강	도시문화와 거버넌스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만들기
	10.26	특강/대상지 현황 및 문제점 논의	2013 수도권 도시재생대학 소개 인문학적관점에서 바라본 마을만들기
	10.27	특강/대상지 잠재력 및 SWOT 분석	서울특별시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추진사례와 과제 서울특별시 주거재생 대안모델 개발과 추진 현황
	11.10	특강/중간발표 및 평가	나는 뛰는 도시보다 참한 도시가 좋다
	11.16	특강/도시재생 우수사례지 답사	도시재생을 하는 수원 행궁동 사람들
	11.17	특강/대상지 주요이슈 및 기본구상 논의	공동체, 주민참여와 도시설계
	11.23	특강/기본계획 및 핵심사업 논의	도시재생특별법의 주요내용과 자치구의 역 할개선 방향
	11.24	특강/최종발표 및 평가, 졸업식	최종발표회 및 수료식
인천광역시 (동구)와 함께하는 2014 인천도시 재생대학	11.05	입학식 및 특강	원도심 활성화의 의미와 전략 2014 도시재생대학 프로그램 소개
	11.08	특강/현황 및 문제점	인천광역시 마을정책 방향 서울특별시 뉴타운의 수습노력과 향후과제
	11.12	특강/잠재력 및 SWOT 분석	도시재생사업 추진사례와 과제 수원시 마을만들기 추진성과와 발전방안
	11.15	특강/우수사례지 답사	우수사례지 답사
	11.19	집중워크숍, 중간평가	집중워크숍, 중간발표 및 평가
	11.22	특강/집중워크숍, 기본구상	뛰는도시 참한도시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발전방안
	11.29	특강/집중워크숍, 기본계획	주민참여와 도시재생지원특별법
	12.03	특강/대상지 잠재력 및 비전	최종발표 및 평가/졸업식

출처 :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http://www.city.go.kr>)

2015년에는 강화군 주최의 강화군도시재생대학, 동구청 주관의 주민과 함께하는 1기 동구 도시재생대학이 운영되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13) 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주민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각각 9강, 6강으로 구성되었다. 강화군의 도시재생대학

프로그램은 이전 도시재생대학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지역 대학(인하대학교)과 연계하여 특강과 실제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도시계획 관점에서의 학습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동구의 도시재생대학은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민간 건축사사무소(디자인연구소 이락) 과 함께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으며 교육을 통해 주민 아이디어를 통한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10> 강화군 도시재생대학 커리큘럼(2015)

분류	일정	내용	비고
강화군 도시재생 대학	05.27	개교식 : 대상지 및 주제 확정	
	07.16	대상지 현황 및 문제점 논의	
	07.25	우수사례지 답사 1 : 연남동 휴먼타운, 염리동 소금마을	
	08.27	대상지 잠재력 및 SWOT 분석	
	09.10	중간발표 및 평가	
	09.24	핵심이슈 선정 및 기본구상	
	10.08	기본계획 및 상세계획 수립	
	10.16~17	우수사례지 답사 2 : 창원시	
	10.28	졸업식 : 최종발표 및 평가	

출처 :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2015), 2015 강화군 도시재생대학 결과보고서

<표 4-11> 제1기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대학(2015)

분류	일정	내용	비고
제1기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대학	06.25	개강식 및 오리엔테이션	
	07.02	마을의 자원과 문제점 찾기(마을걷기)	
	07.09	우선순위 선정 및 미래상 도출	
	07.16	문제해결방안 탐색, 사례이미지 공유, 지원사업 학습	
	07.23	기본구상(안) 작성, 사업실행계획 수립	
	07.30	결과발표 및 수료식	

출처 : 인천광역시 동구청(www.icdonggu.go.kr)



<그림 4-11> 인천광역시 주민역량강화 관련 프로그램(2008-2015)

도시재생 전문 인력으로서의 마을활동가의 양성의 경우,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의 내용을 통해 마을일꾼 육성 및 활동지원과 교육사업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조례 내용으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기능으로서 마을공동체 만들기 일꾼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인천광역시 조례 및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내에서의 마을 일꾼, 마을공동체 만들기 일꾼의 정의는 명시되지 않았으며 일, 돌봄, 문화 또는 여가 사업 등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인력의 육성과 활동의 지원 등 포괄적으로 제시되어 실제 사업에 참여, 추진하는 주민 리더와 주민 의견 수렴 및 거버넌스 형성, 사업 지원 역할의 마을활동가의 영역을 모두 포함하는 정의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4-12> 마을활동 전문인력 및 주민역량강화 지원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에서 2014년부터 주민과 마을활동가를 대상으로 주민참여 의식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의 ‘주민자치 인문대학’과 인천광역시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을활동가 및 주민자치 인문대학 수료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마을활동가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 주민자치 인문대학은 총 5강의 이론과 현장학습으로 구성된 강좌로서 마을공동체 성공사례를 통해 마을공동체의 가치와 철학을 학습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을활동가 워크숍은 공동체 및 사회적 경제 사례 방문으로 구성되어 주민의 마을활동가로서의 양성·활동교육의 측면보다는 주민역량강화와 마을활동가 보수교육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15년도에 지원센터 운영계획으로서 주민교육 사업과 동시에 마을활동가 양성교육에 대한 사업계획이 수립되었으나 현재 예산상의 문제로 마을활동가 양성에 관해서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표 4-12> 주민자치인문대학 프로그램

기수	일자	주제
1기 (2014)	6.11	마을에서 사유하다 : 인간은 가치를 추구하며 산다
	6.18	마을에서 노닐다 : 사람은 유희적인 동물이다
	6.25	마을에서 민주적으로 살다 : 사람은 존엄하고 정치적인 동물이다
	7.2	현장답사 : 인천마을공동체 탐방
	7.9	마을이 세게다(워크숍 진행)
2기 (2014)	10.17	입학식 / 노동은 마을에게 할 말이 있다
	10.24	마을에서 노동이 분리될 수 없는 이유
	10.31	마을과 노동, 무엇을 고민해야 할까?
	11.7	현장탐방
	11.14	실천 워크숍 / 수료식
3기 (2015)	4.2	입학식 / 국가 민주주의, 지역 민주주의
	4.8	한국의 지역사회는 누가 지배하는가?
	4.15	직접 민주주의, 일상 민주주의
	4.22	현장탐방
	4.29	집담회 / 수료식
4기 (2015)	5.27~6.24	마을에서 올바른 주민참여 방식 찾기와 사례현장 탐방

출처: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http://www.incheonmaeul.org/>), 2015년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 사업 진행 요약

[illegible]

**민주주의에
反하다!**
일상 민주주의에 반하다

[illegible]

2014 제2차 주민자치인문대학 안내

마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나?

올 가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마을의 현황과 문제를 잘 알리고 풀이하는 마을연구를 하고자 합니다. 마을 연구원은 다양한 주제별 마을연구팀을 설립 하게 됩니다. 아래에 소개한 팀은 기초도 이해해서 시민을 위한 마을 만들기, 우리 일터, 우리학교, 우리마을이 추구하는 가치와 미션으로 이루어진 다. 특히 사업기획이나, 설문조사·인터뷰 등 조사수사 방법론이나 보편적화단위 하에서 실행로 적용가능한 연구기법이 적용되고, 특히 마을은 마을사람들의 생활터전임을 살려 비영리형 재·교육공동체로 이어져 줄 것을 고민 할까요? 사람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마을을 그 사람들로 구성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 통해 마을에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지를, 삶에 우리가 마을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면서 소통할 방법을 찾는 시간을 되새깁니다.

새 바람결

구분	일시	내용	강사
1강	10/17	입학식 노동촌 마을연구회 팀 발표 있다	김민경 노동촌 민간연구자 모임 <마을을 함께 만들어 가는 길>
2강	10/24	마을에서 노동이 분리될 수 없는 이유	박정림 서울노조연구소 공동대표 <마을을 함께 만들어 가는 길>
3강	10/31	마을과 노동, 무엇을 고려해야 할까? “지역사회는 어떻게 노동자를 대하나요?”	김종훈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4강	11/7	현안탐색 (토론·토론회) 신원 워크숍	변재필 신원 워크숍 대표
5강	11/14	“마을의 현실을 이해하기 위한 토론” 소통식	이 호 불가리아 대사관 문화 담당 공무원

부 집간세

교육대상	지역 주민, 후원자, 대학생, 마을활동가 등
교육장소	인천국제대학교 동측 다목적실
교육기간	2014년 10월 17(일) - 11월 14(일)
수업시간	오전 10시 ~ 12시, 주 1회(2시간씩) *** 11월 7일 현안탐색 (10시~16시)
집수방법	2014년 9월 25일 ~ 25일 홈페이지 신청서 작성 www.incheonmaeu.org 전화신청 선순 032-737-8200 이메일 신청 humanismail@incheonmaeu.org ***전화, 팩스, 메일 신청 모두 가능
언 원	선착순 40명
문 의	연구지원팀 전화문의 032-737-8200

주 권 / 최
인 천 학 대 인천광역시
인 문 자 치 인 문 대학 인천광역시

후 진

인 천 학 대 인천광역시
Incheon Metropolitan City

<그림 4-13> 주민자치인문대학 안내포스터
출처: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http://www.incheonmaeul.org>)

현재 인천광역시에서 실시하는 주민참여형 마을 사업, 도시재생 사업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 있어서는 통반장 및 주민자치위원 등 기존 조직의 활용,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와의 연계 및 인천광역시 내에서 자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마을활동가를 통한 사업 지원 및 퍼실리테이터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등의 형태로 추진되고 있으나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이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내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 계획 및 추진 증가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마을활동가의 역할을 담당하는 전문적인 인력의 양성 및 활동가 풀 구축, 보수교육(補修敎育) 등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4-13>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 중 전문인력 지원사항

조항	내용
제9조 (사업지원)	<p>시장은 다음 각 호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주도의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사업 3. 마을기업·사회적기업·협동조합 육성 4. 마을환경 보전 및 개선 사업 5. 마을 문화·예술 및 전통의 계승발전 사업 6. 마을일꾼 육성 및 활동지원과 교육사업 7.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복지증진 사업 8. 마을공동체 만들기와 관련된 단체·기관 지원사업 9. 마을공동시설 개선사업 10.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3조 (지원센터의 기능)	<p>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초조사 및 사업의 분석·평가·연구 3. 주민주도의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4.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계획 수립·실행 지원 5.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공모 6. 마을공동체 만들기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7. 마을공동체 만들기 일꾼 발굴 및 육성 8.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교육, 홍보, 세미나, 국내·외 견학 9. 마을공동체 만들기 자원조사·관리 10.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2절 인천광역시 마을활동가 활동 현황 및 의식 조사 특성

1. 조사 개요

인천광역시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을활동가를 대상으로 활동의 개요 및 활동 현황, 활동에 있어서의 한계 등을 복합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대상은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마을활동가 중 정보공개에 동의한 50명의 활동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 기간 및 조사 방법은 9월 7일부터 16일까지 약 10일간 전자우편을 통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포하여 회신 받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마을활동가의 활동지역 분포는 서구가 1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평구 10명, 남구 6명, 중구 5명, 계양구·남동구·동구 각 4명, 연수구 2명, 옹진군 1명으로 집계되었다.

조사항목은 총 11문항으로 작성되었으며 일반사항, 마을활동 전반에 관한 사항, 정책 및 제도 관련 활동, 그리고 공공지원에 관련된 사항으로 구성되었다.

<표 4-14> 설문조사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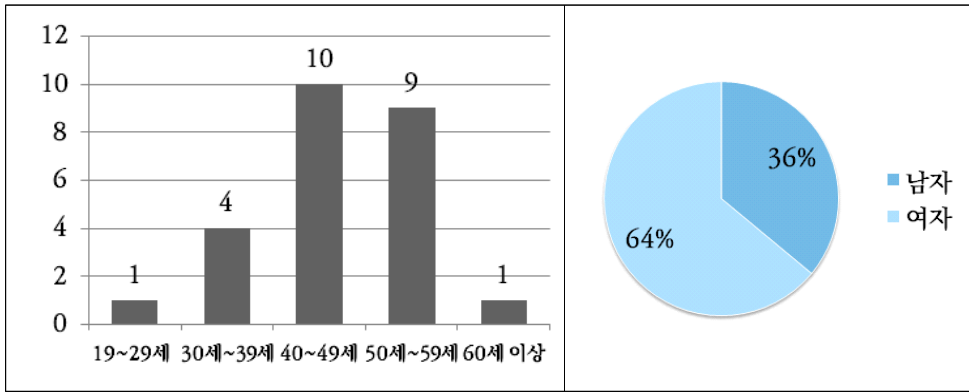
연번	분류	설문개요	비고
-	일반사항	연령, 성별, 거주지, 현 거주지 거주기간, 현재활동지역, 현재 활동지역에서의 활동 기간	6항
Q1		활동분야	중복응답
Q2		활동의 계기	가중치
Q3		활동상의 어려움	-
Q4		생업활동여부	-
Q5	정책 및 제도 관련 활동	인천광역시 내 제도기반 마을활동 경험	예/아니오에 따라 별도 문항 (추가5문항)
Q6	공공지원에 관련된 사항	마을활동가로서 지원받은 경험	있을경우 주관식
Q7		마을활동가 지원필요 여부	있을경우 가중치 문항응답
Q8		마을활동가 지원체계 구축 필요 여부	이유 주관식
Q9		마을활동가 지원체계 구축 필요 여부	이유 주관식
Q10		인증제 및 지원체계 구축시 참여의사	-
Q11		자유의견	-

2. 분석 결과

1) 일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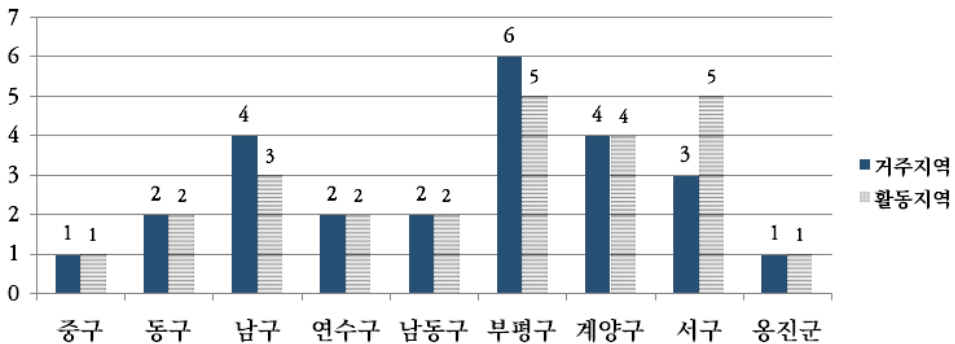
응답자의 연령은 40대가 가장 많았으며(40%), 다음으로 50대(36%), 30대(16%)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은 여성이 64%로 남성(36%)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5> 응답자의 연령대 및 성별 분포



응답자군의 거주지는 부평구 24%, 계양구·남구 16%, 서구 12% 등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기존 설문대상의 분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활동지역에 있어서는 거주지역에 관한 질문에서 나타났던 응답과 다소 차이는 있으나 분포상 큰 특징이 없어 대부분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림 4-14> 응답자 거주지역 및 활동지역 분포

현재 거주지에서의 거주기간의 경우 가장 많은 응답은 20년 이상(32%)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5년 이상~10년 미만 (28%), 10년 이상~20년 미만(24%)로 조사되어 현재 거주지에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월등히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활동지역에서의 활동 기간에 있어서는 1년 이상~3년 미만 활동한 경우 (32%)와 3년이상~5년미만 활동하고 있는 경우(28%) 가 많으며,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4%, 그리고 5년 이상~10년 미만 활동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6%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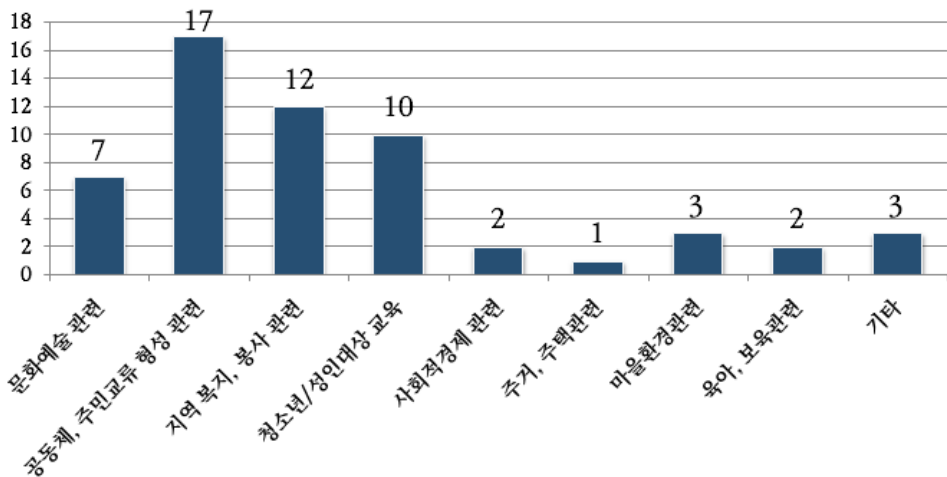
<표 4-16> 현재 거주지역 거주기간 및 활동지역 활동기간

		빈도	비율(%)
현 거주지에서의 거주기간	1년 미만	1	4
	1년~3년 미만	1	4
	3년~5년 미만	1	4
	5년~10년 미만	7	28
	10년~20년 미만	6	24
	20년 이상	8	32
	무응답	1	4
전체		25	100
현 활동지역에서의 활동기간	1년 미만	0	0
	1년~3년 미만	8	32
	3년~5년 미만	7	28
	5년~10년 미만	4	16
	10년~20년 미만	4	16
	20년 이상	2	8
	무응답	0	0
전체		25	100

2) 마을 활동 전반에 관한 사항

마을활동 전반에 대한 사항은 마을활동가의 활동분야와 활동 계기, 활동상의 어려움 및 생계활동에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인천광역시 내 마을활동가의 활동분야는 공동체 및 주민교류 형성에 관한 활동이 가장 많았으며(30%) 지역 복지 및 봉사활동(21%), 청소년 및 성인 대상의 교육활동(18%), 문화예술관련(12%) 순인 것으로 나타나 분야를 특정하지 않고 다양한 영역에서의 주민 교류, 거버넌스에 대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림 4-15> 마을활동가 활동분야

마을활동가로서 현재의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는 지역 내 주민 교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라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29%), 그 다음으로는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16%)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14%) 순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정치적 또는 경제적인 이유로 응답한 비율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나타나, 정치경제적 이념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시민단체에 비해 활동의 목적이 우리지역, 우리 마을 등 공간성과 공간에 대한 공동체의식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17>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

분류	1순위 (x3)	2순위 (x2)	3순위 (x1)	계
정치적으로 변화가 필요	6	2	0	8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6	12	3	21
경제적으로 새로운 수입을 창출	6	2	0	8
지역 내에 주민 교류가 필요	30	6	7	43
지식 또는 예술적 아이디어를 공유	6	8	5	19
우리마을의 환경을 가꾸고 보전	6	12	2	20
지역사회에 공헌	12	6	5	23
기타	3	0	1	4

마을활동을 진행하면서 나타나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행정지원, 재정적 어려움, 주민들간의 거버넌스, 공동체의식의 부족이 같은 비율로 나타나 활동에 있어 해당 어려움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18> 마을활동 진행상의 어려움

분류	빈도	비율(%)
행정지원의 부족	9	26
재정적인 어려움	9	26
주민과의 소통, 상호교류의 부족	4	12
주민들 간의 거버넌스, 공동체 의식의 부족	9	26
스스로의 활동 분야에 대한 정보 및 지식 습득의 기회부족	2	6
기타	1	3
계	25	100

마을활동가의 생업활동여부에 대한 조사에 있어서는 72%에 해당하는 활동가가 현재 생업활동과 마을활동을 병행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마을활동의 시행이 개인의 경제활동과는 큰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한편 생업의 형태에 있어서는 자영업, 교육업 및 사회복지 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9> 경제활동여부

분류	빈도	비율
생업이 있음	18	72
생업이 없음	7	18
계	25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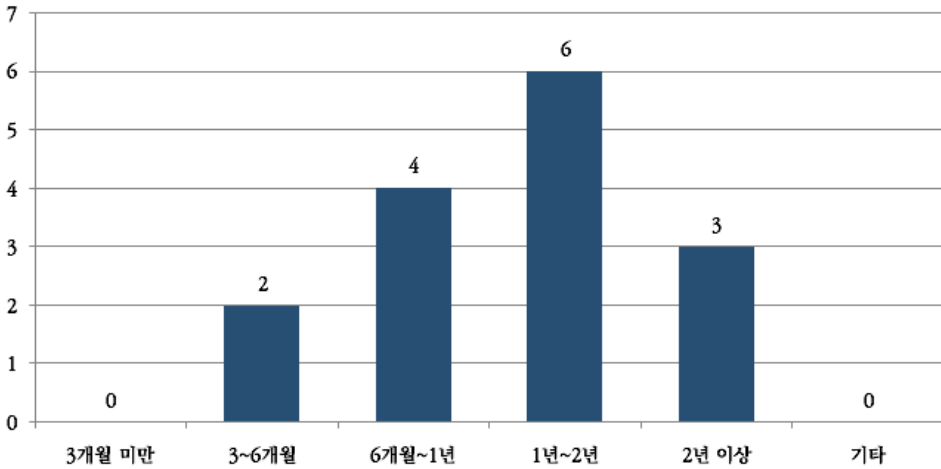
3) 정책 및 제도 관련 활동

정책 및 제도관련 활동에 대한 설문 항목은 인천광역시 및 군구의 도시재생 및 마을관련 정책 참여 여부를 주제로 하여 연결성이 있는 제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응답군의 약 64%가 인천광역시 및 군구의 도시재생 및 마을관련 정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참여한 총 기간에 있어서는 1년 이상 ~2년 미만의 경우가 40%로 가장 많았다. 참여기간에 있어 3개월 미만으로 응답한 경우는 없었으며, 2년 이상도 20%로 나타나는 등 정책 및 제도 내에서의 참여 및 활동 기간이 장기간이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주로 참여한 인천광역시 도시재생 및 마을관련정책의 형태는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참여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인천문화재단의 지역공동체 만들기 사업, 인천광역시 저층주거관리사업 등에 참여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이러한 정책 활동 내에서의 마을활동가의 참여 형태는 정책 및 제도의 실행에 있어 대상지의 주민 간 소통 및 네트워크 증진을 위한 중간 역할로서 참여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6> 정책 및 제도 참여활동 기간

<표 4-20> 정책 및 제도 내 참여 형태

참여형태	빈도
도시대학 등 관련교육에 수강생으로 참여	2
도시대학 등 관련교육에 강사로 참여	3
일반 주민의 공동체, 사회적 경제 활동에 자문 및 협력	3
주민 간 소통 및 네트워크 증진을 위해 참여	10
벽화, 마을지도 등 전문 영역의 재능 및 아이디어 제공	2
관련 계획, 정책 등에 심의, 자문	3
기타	3
계	26

※중복응답으로 조사

정책 및 제도기반의 활동 경험에서 나타났던 어려움에 관한 설문은 중복 응답으로 실시되었다. 분석 결과 행정지원의 부족(24%)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주민들 간의 거버넌스와 공동체 의식(17%)이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인천광역시 및 군구 등 행정의 정책과 제도 내에서의 활동임에도 행정지원의 부족을 고충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기타 의견에 있어서도 서류 작성과 보고에 대한 어려움

으로 응답하여 행정적 절차에 대한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주민간의 거버넌스와 공동체 의식의 부족은 주민대학 등 교육, 마을만들기 등 공동체 활동에의 참여 등을 통한 의식 개선이 오랜 시간에 걸쳐 쌓여나가야 하는 필요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4-21> 정책 및 제도기반 활동상의 어려움

분류	빈도
행정 지원의 부족	7
재정적인 어려움	4
주민과 활동가 간 의사소통, 상호교류의 부족	4
주민들 간의 거버넌스, 공동체의식이 부족	5
활동가와 활동가 사이의 정보공유, 교류의 부족	2
스스로의 활동 분야에 대한 정보 및 지식 습득의 기회부족	3
기타	4
계	29
※중복응답으로 조사	

한편 기존 인천광역시 및 군구의 도시재생, 마을관련 제도 및 정책으로 실시된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경우 활동경험이 없는 가장 큰 이유로 생활을 위한 경제활동이 겹치기 때문(46%)을 들었으며, 이외에 관련정책의 홍보부족, 지자체 부서와의 소통 및 네트워킹의 어려움 등으로 응답하였다. 주민과의 소통 및 네트워킹에 대한 어려움이나 공공의 정책 및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의사가 적은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향후 참여 의사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는 약 78%가 참여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했으며 그 이유로 지역사회 및 거주 지역에 대한 공헌과 스스로의 성취감을 이유로 들었다. 한편 참여에 대해 부정적인 경우는 생업 활동 및 회계 등 지자체 마을활동정책에서의 서류작업에의 부담감을 이유로 응답하였다.

<표 4-22> 참여 경험이 없는 이유

분류	빈도
관련 정책에 관한 홍보 부족	2
주 생활을 위한 경제활동과 겹쳐서	5
현재 하고 있는 마을활동으로 충분해서	1
주민과의소통및네트워킹의어려움이크게느껴져서	0
지자체 부서와의 소통 및 네트워킹의 어려움이 크게 느껴져서	2
공공의 정책 및 프로그램에 관한 참여 의사가 적음	0
기타	1
계	11

4) 공공지원에 관련된 사항

공공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설문은 중앙정부 및 부처 등 공공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 및 일반 기업, 재단 등 민간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의 활용 여부, 행정에서 실시하는 마을활동가의 양성지원 및 인증·검증제도에 관한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내용으로 조사되었다.

<표 4-23> 지원프로그램에의 참여

분류	빈도	비율(%)
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음	13	52
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없음	11	44
응답없음	1	4
계	25	100

공공을 주체로 하는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는 응답(54%)이 참여한 경험이 없는 경우(46%)에 비해 살짝 높았으며, 참여 프로그램의 지원 주체에 있어서는 인천광역시의 지원 정책 및 제도(33%)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표 4-24> 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주체

분류	응답
중앙정부 지원정책 및 제도	3
중앙정부 부처 소속 공공기관의 지원정책 및 제도	1
인천광역시 지원정책 및 제도	5
인천광역시 소속 공공기관의 지원정책 및 제도	2
인천광역시 외 지자체 및 지자체 소속 공공기관의 지원정책 및 제도	3
재단, 사기업등 민간주체의 지원	1
계	15
※중복응답으로 조사	

참여한 프로그램을 통한 활동의 지원 형태에 있어서는 예산 지원(53%)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교육지원(23%), 교류 및 홍보지원(18%) 등으로 집계되었다. 행정적 지원으로 응답한 경우는 5.8%로 나타났다.

<표 4-25> 활동 지원의 형태

분류	빈도
행정지원	1
예산지원	9
교육지원	4
교류, 홍보지원	3
계	17
※중복응답으로 조사	

마을활동가를 위한 지원 체계의 구축시의 필요 지원의 형태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에 관한 응답이 크게 높았지만 교류와 네트워크 관련 지원, 행정지원 및 교육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체감도 낮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지원 형태에서 예산에 대한 지원이 절반 이상으로 나타나는 만큼 향후의 교육지원, 행정지원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및 개선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4-26> 지원체계 구축 시 필요한 지원 형태

분류	1순위(x3)	2순위(x2)	3순위(x1)	계
행정지원	9	12	6	27
예산지원	45	8	1	54
교육지원	9	8	9	26
교류, 네트워크 지원	3	14	3	20
홍보 관련 지원	6	6	4	16
기타	0	0	1	1
계	72	48	24	144

마을활동가 지원체계 구축에 대한 필요성에 있어서는 92%가 그렇다고 답변했으며, 관리 및 인증제도의 구축 필요성에 있어서는 75%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지원체계 및 인증제도의 구축 시의 참여 의사에는 44%가 두 가지 체계에 모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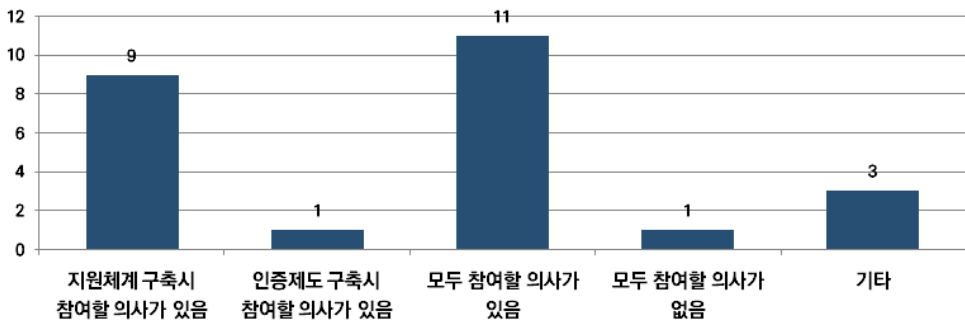
마을활동가의 지원에 있어서는 현재의 도시재생 및 마을관련 정책 추진에 있어 기반인력으로서의 활동가의 활동지원 및 전문성을 향상하는 한편 향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도시재생 및 마을관련 정책 추진에 대한 전문 인력 수요를 확보하는 전략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 한편, 인증 및 검정제도 구

축을 통해 도시재생사업 내의 전문 인력의 위상강화, 지속적인 활동가의 역량 유지 및 발전, 고용창출 등의 측면의 고려가 가능하다.

<표 4-27> 지원체계 및 인증체계 필요성

문항	분류	빈도	비율(%)
지원체계 구축 필요성	필요하다	23	92
	필요하지 않다	0	0
	기타	2	8
	계	25	100
인증체계 구축 필요성	필요하다	18	72
	필요하지 않다	6	24
	기타	1	4
	계	25	100

이러한 지원체계 및 인증체계가 실제로 구축될 경우의 참여 의향에 대해서 모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원체계의 구축 시에만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6%, 기타 응답이 12%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의견으로는 자율성의 침해, 생활을 위한 경제활동과의 조정 등에 관한 우려 등이 조사되었다.



<그림 4-17> 지원체계 및 인증체계 참여 의향

5) 기타사항

자유서술 방식을 통해 나타나는 의견을 종합해보면 첫 번째로 행정에 의한 지원, 마을지향형 행정체계 구축 등에 있어서는 대다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나 인종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자율성의 침해에 관한 우려가 있었으며, 또한 소수의 마을활동가가 마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점에서 조심스럽다는 의견이 있었다. 행정의 재정 지원에 대한 의견에는 기존 사업에서 나타났던 마을 활동에 예산이 결부되었을 때의 문제점들에 대한 우려와, 재정지원을 받고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행정적 처리의 어려움 등의 의견이 있었다.

대다수의 자유의견에서 응답된 사항에는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있었는데, 담당 공무원과 마을활동가 및 예비 마을활동가로 활동 가능한 지역 주민에 대한 교육 및 협력 체계를 통해 이해의 폭을 넓혀나가야 한다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교육 분야는 커뮤니케이션, 독서, 문화, 예술 등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동아리활동 등 주민의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 및 거점공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한편 마을활동가의 활동에 대한 보수 성격의 지원에 있어서는 현재와 같이 봉사로 여겨지는 형식에는 다소 불만을 나타내는 응답이 있었으나 많은 활동가들이 현재의 활동에 대한 금전적 보수보다는 활동비 정도의 지원이나 교통비 등에 활용 가능한 마일리지 제도 등 생활에 기반한 혜택 등으로 환원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었다.

이외의 의견에는 베이비 부머 세대 등 고령자의 사회적 경험과 역량을 활용하자는 의견, 도서관과 마을학교 등 공적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마을활동을 연계하여 공적 교육기능을 활성화 시키자는 의견, 현재 예산 집행을 마을활동가 대신 공공에서 일괄 실시하자는 의견 등이 기타 의견으로 제안되었다.

제3절 소 결

4장에서는 인천광역시의 도시재생 관련정책의 동향과 도시재생 기반 인력 양성 사업의 현황에 대하여 정리, 분석하였으며, 또한 인천광역시 내 자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마을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국내 도시정비 패러다임이 도시재생으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인천광역시 및 군구에서도 최근 몇 년 동안 거주자 중심의 사업 추진 및 마을만들기 조례 등 관련제도 정비를 추진해 왔으며, 저층주거 정비사업 등 도시재생 범주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주민역량강화에 있어서도 부평구 등 인천광역시 내 지자체 자체사업과 수도권 도시대학 등 정부사업으로 지속성을 가지고 추진된 바 있으며, 2012년부터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수립 및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등 지속성 있는 지원형태를 갖추고 있다.

한편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의 확산과 공감대의 형성에 있어 많은 선행 연구자와 실제 활동가들이 십년, 이십년 이상의 장기간의 안목으로 바라 볼 필요성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지원책이 마련된 지 이제 몇 년이 되지 않은 현재에 있어서는 도시재생계획의 수립과정이나 도시재생 사업으로 시행되는 사업에 있어 주민의 자발적 참여나 주도에 있어 적극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실정이며, 또한 주민을 적극적인 참여주체로서 위치시키고 있는 법정 도시재생 관련 계획의 수립 등에 있어서도 실제 주민과의 소통형태나 도시재생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는 과제가 있다. 이것은 비단 인천광역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재생 관련 계획과 사업에서 규정하는 주민의 주도적 참여자, 제안자의 역할이 아직까지 국내 시민사회에서 공감대를 얻고 있지 못한 것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현황분석 결과 인천광역시는 지역역량강화, 주민교육에 있어서는 군구 사업 및 지원센터 운영사업 등 지속적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주요 커리큘럼의 내용을 보면 초기에는 주민자치와 지역 공동체성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후에는 마을만들기, 도시재생사업 등 주민 참여형 재생사업의 사례와 실제 현장을 대상으로 한 도시재생 스튜디오 등 도시 설계적 학습과정을 주요 내용으로 설정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도시재생사업의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에 있어서는 효과적인 접근방법일 수 있으나 행정과의 소통, 주민

(조직)과 주민(조직)간의 소통(의견 수렴), 주민 조직의 구성 등 실제 도시재생 사업을 계획, 추진하면서 다수 발생하는 거버넌스와 갈등관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보여주며, 실제 다수 사업에 있어 이러한 부분이 사업의 지속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지금까지 인천에서 시행된 도시재생 사업에 있어 이러한 중간자의 역할이 필요할 경우, 주로 한 지역에 장기간 거주하며 주민교류의 필요성을 인식한 주민(마을활동가)가 다수 담당해 온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설문을 통해 이들이 자발적인 활동 또는 행정적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서류작성 등 행정적 지원의 부족과 생업활동과의 조정 등이 활동상의 어려움으로 나타났으며 마을활동가로 활동이 가능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거점 공간 등이 계속활동을 위한 필요조건으로 제시되었다.

향후 도시재생 사업 실시에 있어 지속성과 주민 주체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지역역량강화 과정에서의 커뮤니케이션 등 다양한 측면의 이해 향상, 중간자·조력자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의 양성 등이 필요하며, 마을활동가로 성장 가능한 인력의 확보 및 거버넌스, 갈등관리 측면의 교육과정, 마을활동가들의 계속적 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활동가 교류 네트워크와 활동가 풀 구축 등 도시재생사업과의 지속적 연계, 거점공간 마련, 활동에 수반하는 일정 부분의 금전, 비금전적 보상 및 활동가 역량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기반인력 양성 정책 현황 및 발전방안

A study on current community organizers training policy and development
direction for Improving effectiveness of participatory urban regeneration
projects in Incheon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연구의 종합

제2절 정책 제언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제1절 연구의 종합

도시 쇠퇴에 대응하는 도시정책의 방향이 물리적 정비사업에서 종합적 시각의 도시재생으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인천광역시에서도 저층주거관리사업,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 마을공동체 조례 및 지원센터 설치 등 도시재생 정책 및 관련 제도의 기반을 구축하고 다양한 관련 사업을 추진해 왔다. 또한 도시재생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 도시재생의 필요성과 주체적 참여에 대하여 주민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하기 어려우며, 또한 현재 도시재생 유관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시 주민의견 수렴, 민관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는 주민자치위원/통반장 등 기존 주민조직 활용, 지원센터, 자발적 마을활동을 진행 중에 있는 활동가 및 지역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진행하는 등 상황에 따라 다양한 소통방식을 채용해왔으며 실제 사업과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과의 연계는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서 인천광역시의 도시재생정책 및 제도현황 및 도시재생 기반인력의 양성 과정을 파악하고, 도시재생 전문 인력으로서의 인천광역시 내 마을활동가의 의식조사 및 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를 정리하여 향후 도시재생 기반 인력으로서의 전문 인력의 양성을 통한 효과적인 인력 양성 및 활용 방안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 인천광역시 도시재생 정책 및 사업 특성

인천광역시는 도시재생으로의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추어 여러 도시재생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고 도시재생 기반인력 양성에 있어서도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또한 주민역량강화의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도

시재생관련계획 및 사업 추진에 있어 중간역할로서의 마을활동가의 양성에 있어서는 아직 관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일체적, 상설적인 민관 커뮤니케이션 체계는 마련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다.

□ 인천광역시 내 마을활동가 의식 특성

마을활동가 의식조사 결과 주로 주민교류 및 공동체 형성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한 지역에 오래 거주하고 지역 내 주민 교류에 관심이 많은 주민이 마을활동가로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중앙정부 및 인천광역시의 도시재생 정책 및 제도 내에서도 주민 교류와 공동체 형성을 위해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생업활동과의 조정의 어려움, 지원 프로그램 등 참여시 행정적 절차에 대한 과제, 갈등조정·커뮤니케이션·활동에서 나타나는 과제에 대한 학습 필요성 등이 활동에 있어서의 난점으로 나타났다.

□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한 도시재생 전문기반인력 양성 특징

국내외의 전문 기반인력 양성 사례분석 결과 나타나는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의 도시설계 관점이 아닌 갈등관리, 공동체(주민조직) 형성, 소통 기법 등 중간자의 역할에 대한 교육 커리큘럼을 갖추고 있었다. 둘째, 체계적 프로그램을 갖추어 일정 부분 수료한 자에게 수료증명 등 일정한 인증체계를 갖추고 교육자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 내 사업에의 참여 등 교육 이후 활용을 통한 지역 순환을 유도하였다. 셋째, 단계별 교육체계를 갖추어 전문성을 향상하고 또한 수료 이후 지속적인 보수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넷째, 공공의 도시재생 사업 참여, 지역내외의 커뮤니티 진단사로서의 참여, 커뮤니티 오거나이저로서의 고용 등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인증을 활용하여 활동하는 경우 일정한 보수 또는 혜택을 지급하거나 사회적 일자리와 연계하는 등을 통해 활동가의 활동을 지속화, 안정화 시키고자 하였다. 다섯째, 교육을 통해 양성되는 도시재생 전문 기반인력에 있어서는 활동가 네트워크 구축, 교육실시 기관 내 활동가 풀 구축 등을 통해 역량 있는 기반 인력을 관리, 활용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제2절 정책 제언

인천광역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시행,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제정 등 도시재생과 마을공동체 등 사업의 중요성 및 주민역량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해 왔다. 또한 마을활동가 등 전문 인력의 양성에 있어서도 지원에 대한 제도적인 기반은 갖추고 있으며, 향후 증가할 도시재생에 관련한 수요에 대해 마을활동가 등 전문성을 가진 기반인력의 양성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주민역량강화 교육과 그 이후과정으로서의 활동가 양성과정 고려

인천광역시에서는 그동안 광역시와 군구 차원에서 도시재생을 주제로 한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경험이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에서는 도시재생 사업을 실제 실시할 수 있는 주민의 양성의 목적으로 주민자치와 도시설계 관점에 중점을 둔 경향이 있으며 또한 교육 수료 이후 후속 프로그램을 통한 활용, 교육 강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은 도시재생에 대한 공감대의 형성과 실제 사업의 추진주체로서의 주민 형성에 필요하며, 또한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수료한 주민 중 후속 프로그램을 통해 갈등관리, 주민 의견 수렴, 주민조직 형성, 지원 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시켜 실제 추진주체로 나타나거나 도시재생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민의 지원역할로 위치시키는 방향 등 교육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역할을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체계적 커리큘럼 및 지속적 보수교육을 통한 전문성 관리

현재의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은 자치와 커뮤니티 사례, 실제 도시계획 및 정비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보다 전문적인 지원역할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 사업 추진의 관점과 함께 실제 사업 계획 수립에서 주민참여의 도시재생사업 실시에 이르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과제에 대한 이해가 수반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일정의 커리큘럼 수료 이후에도 지속

적으로 나타나는 현안에 대해 공유하고 대처할 수 있는 보수 개념의 추가 교육지원이 고려될 때 지속적인 전문성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커리큘럼을 통해 양성된 활동가 네트워크, 활동가 풀의 구축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의 경우 매년 실시되는 교육 프로그램 수료 이후의 과정이 없는 단발성 사업으로 보이며,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일정부분 주민역량이 강화되어도 실제 도시재생관련 계획 수립과 도시재생사업 추진과의 직접적인 연계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일정 정도의 커리큘럼을 이수한 후 이를 인정하는 증명체계(인증체계) 시스템 마련, 주민역량강화 교육 이후 후속교육으로서의 활동가 양성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의 증명체계(인증체계) 및 이수자 누적을 통한 활동가 풀 구축과 실제 계획 및 사업추진시의 연계를 통한 활용체계가 구축되어 지속적으로 지역에서 역할 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활동가 간,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활동상의 어려움으로 나타나는 행정과의 소통부족, 활동분야에 대한 정보 및 지식습득 기회 등의 부족에 대한 개선이 가능하도록 한다.

□ 일정의 보수 또는 혜택을 통한 활동 장려

사례를 통해 여러 지자체에서 마을활동가의 중간역할, 소통역할에 대해 일정 정도의 보수를 주거나 혜택을 주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또는 서울특별시의 뉴딜형 일자리 사업, 부산광역시 지역밀착형 창조일자리 프로젝트 등 취업이 어렵고 사회 안전망이 부족한 현재 사회에서 고용, 복지와 연계하여 일정기간의 직업으로서 마을활동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우리의 경우 행정에 의한 도시재생계획수립 및 사업에 참여하여 활동가로서 역할 하는 경우 소정의 보수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자발적 마을 활동에 있어서는 활동에 대한 생활 부문의 인센티브 등을 통해 활동의 지속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중앙정부 및 부처에서 지원하는 사회적 일자리와 연계하여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지역 내 대학, 기업, 단체 등 지역연계 체계 구축을 통한 활용

기후 현의 커뮤니티 진단사, 영국의 커뮤니티 오거나이저 등은 행정과 지역 내 대학, 기업, 시민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해 교육, 양성되어 다시 지역의 일에 투입 되는, 순환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인천광역시에서도 기존 주민 역량강화 과정에 있어서는 지역 내 대학과의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진행해 왔으며, 한편 역량강화 프로그램과 그 후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양성되는 전문 인력의 활용에 대한 지역 내의 수요를 취합하고 증폭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적 활용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

[참고문헌]

■ 문헌자료

- 구자인(2006), 농촌 살리기의 대안, ‘마을 간사’ 제도, 환경과 생명, v47, pp.179-192
-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07), 균형발전 정책교본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업자원부(2007), 2007년도 국가균형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 국토해양부(2009),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살고 싶은 도시정책의 발전방안 연구
- 국토해양부(2009), 2009년 도시대학 운영연구
- 권진희(2015), 부산광역시 도시재생 중간지원조직의 전략과 구상, 국토, v403(5), p78-83
- 김경배, 정현순(2015), 도시대학을 통한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쟁점과 발전방향, 건축, v6, p22-28
- 김경수(2010), BDI 정책포커스: 산복도로 르네상스, 원도심 재생의 시발점, 부산발전연구원
- 김권수(2014), 서울특별시의 도시재생사업이 주민의 마을만족도와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공공사회연구 v4(1), p66-92
- 김영주, 박남희(2012),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관점에서 본 일본의 마을만들기 사례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v30(4), p133-146
- 김주석(2014), 수원시 마을만들기의 과제-민선5기 마을만들기 정책운용을 중심으로-, 수원시정연구원
- 김홍주, 조승연, 김주진, 이영환, 심종현(2014), 도시재생전문가 자격제도 도입 연구, 토지주택연구원
- 민현정, 김기곤, 김재철(2015), 광주시 마을공동체 형성과 강화방안 연구, 광주발전연구원
- 백기영(2014), 옥천군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수립 연구, 영동대학교 산학협력단
- 부산광역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마을활동가 인증시스템 GUIDE LINE.
- 서울특별시(2012),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지원센터(2015), 2015년도 도시재생 시민아카데미 지역재생활동가 양성과정 운영계획
- 서울특별시 주거재생과(2015), 지역재생 활동가 전문 교육 계획
- 송희영(2011), 서촌(西村)의 마을 만들기를 향한 두 가지 관점 연구 : ‘서촌’과 ‘세종

- 마을', 마을 명칭 논쟁을 중심으로, 예술경영연구, v20, p121-146
- 신중진, 신효진(2010),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주민의 역할변화에 따른 지원방안 연구-서울 독산 3동 마을만들기 사례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지, v26(10), p233-244
- 양재혁(2010), 마을만들기 사업의 추진과정에 관한 정성적 평가-부산 산성마을을 중심으로-, 대한 건축학회 연합논문집, v12(4), p41-48
- 오다해, 김철영(2014), 마을만들기 사업에 있어서 참여주체의 특성에 관한 연구 : 주민참여기법을 중심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지, v5(5), p5-16
- 윤혜영(2014), 저층주거지 공동이용시설 활성화 방안, 인천발전연구원
- 이석환(2012), 지속 가능한 마을 만들기의 원칙 : 장소시대를 위하여, 환경논총, v51, p3-18
- 이석현(2012), 마을만들기의 효율적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시흥시 희망마을만들기를 대상으로, 디자인학연구, v25(3), p162-171
- 이왕기(2013),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주민참여 사례연구, 인천발전연구원
- 이왕기(2014), 인천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의 운용 특성과 과제, 인천발전연구원
- 이은지, 최현선(2015), 도시 커뮤니티 형성 과정의 탐색: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례를 중심으로, 국토연구, v84, p75-84
- 이운석, 김세용(2008), 함평군과 나가하마시(長浜)의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 비교연구, 대한건축학회지, v24(12), p207-214
- 정석(1999), 마을단위 도시계획 실현 기본방향(I)- 주민참여형 마을 만들기 사례 연구, 서울연구원
- 조상운·김영은(2014),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및 도시재생 조례 규정에 관한 연구, 인천발전연구원
- 인천광역시(2013),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만들기 기본계획
- 진안군청(2007), 제1회 마을만들기 전국대회 in 진안
- 최강림(2015), 부산광역시'산복도로 르네상스 마을만들기 사업'운영사례 연구: 서대신 1동 '고분도리 마을만들기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지 v16(1),p129-146
-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08),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의 발전적 개편방안
- 한국토지주택공사(2009), 09년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 선정과 Help Desk 운영을 통한 시범사업(07~09) 관리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 (사)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2009),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를 위한 삶의 질 향상 매뉴얼

■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광주광역시 공식블로그 <http://saygj.com>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http://www.city.go.kr/index.do>
 로컬리티 <http://locality.org.uk>
 부산광역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http://www.busanmaeul.or.kr>
 부산광역시 사하구청 <http://www.saha.go.kr>
 부산광역시청 <http://www.busan.go.kr>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http://www.dongjak.go.kr>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http://www.seoulmaeul.org>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세모편지 <http://sehub.blog.me>
 서울특별시 정보소통광장 <http://opengov.seoul.go.kr>
 서울특별시 주택·도시계획·부동산·마곡사업 <http://citybuild.seoul.go.kr>
 영국 정부 홈페이지 <http://www.gov.uk>
 인천광역시 남구 홍보블로그 통통통 남구 http://blog.naver.com/tong_namgu
 인천광역시 동구청 www.icdonggu.go.kr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http://www.incheonmaeul.org>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http://www.icbp.go.kr>
 주거재생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www.facebook.com/uhregeneration>
 커뮤니티 오거나이저 <http://www.corganisers.org.uk/>

■ 보도자료 및 기사

경인일보(2014.12.4.) [착한 경제가 일자리를 만든다·4] 마을 공동체의 지역혁신 '로컬 리티'
 뉴스1(2012.9.11.). 서울특별시, 5년 동안 '마을활동가 3180명 양성.'
 뉴시스(2013.8.6.). 부산광역시, 산복도로 마실지기 '청년 서포터즈' 출범
 뉴시스(2015.3.16.). 부산광역시, 마을활동가 13명 위촉... '행복마을' 본격 지원
 매일신문(2014.9.22.) [양극화 해소, 공동체가 답이다] (1) 영국 마을 만들기 운동의 힘, '큰 시민사회'(Big Society)



인천광역시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기반인력 양성 정책 현황 및 발전방안

A study on current community organizers training policy and development
direction for Improving effectiveness of participatory urban regeneration
projects in Incheon

부록

인천광역시 마을활동가 인식조사

〔부 록〕

No				
----	--	--	--	--

인천광역시 마을활동가 인식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조사는 인천발전연구원 2015년 기본과제로 수행 중에 있는 “인천광역시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정책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기반인력 양성 방안”의 일부 내용으로 서, 인천광역시 내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마을활동가의 활동 현황과 향후 도시재생정책 실효성 향상을 위한 기반인력 양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정책의 지속적, 실질적 정책효과의 담보와 시민이 참여하는 도시재생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반 인력 양성 지원에 관한 시사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인천광역시 내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마을활동가 중 개인정보의 활용에 동의해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의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개인정보는 본 설문조사 외의 목적으로 절대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본 설문문의 결과는 본 과제의 수행 이외에는 절대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015. 9. 7.

조사주관: 인천발전연구원 도시기반연구실 부연구위원 윤 혜 영 (032-260-2635)

I. 일반사항

구 분	내 용		
연 령	① 만19세 미만 ④ 40세~49세	② 19세~29세 ⑤ 50세~59세	③ 30세~39세 ⑥ 60세 이상
성 별	① 남성	② 여성	
거 주 지	① 인천광역시 거주자	()구 ()동	
	② 인천광역시 비거주자	()시 ()구	
현 거주지 거주기간	① 1년 미만 ④ 5년~10년 미만	② 1년~3년 미만 ⑤ 10년~20년 미만	③ 3년~5년 미만 ⑥ 20년 이상
현재 활동지역	인천광역시	()구 ()동	
현재 활동지역에서의 활동기간	만 ()년		

II. 마을 활동 전반에 관한 사항

1. 현재 지역 내에서 하고 계시는 마을활동은 어떤 분야에 가깝습니까? (중복응답가능)

- ①문화예술 관련 ②공동체, 주민교류 ③지역 복지, 봉사 ④청소년/성인대상
형성 관련 관련 교육
⑤사회적경제 관련 ⑥주거, 주택관련 ⑦마을환경관련 ⑧육아, 보육관련
⑨기타()

2. 현재 하고 계시는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관련 있는 항목 3가지만 1.2.3으로 응답해주세요. 1:가장 관련이 깊음 2: 두 번째로 관련이 깊음 3: 세 번째로 관련이 깊음 순서입니다.)

문항	관련도 순 (1~3까지 체크)
정치적으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육아, 노인 등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새로운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서	
지역 내에 주민 교류가 필요하다고 느껴서	
지식 또는 예술적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싶어서	
우리마을의 환경을 가꾸고 보전하고 싶어서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싶어서	
기타()	

3. 마을활동을 진행하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 | | | |
|---------------------------|------------------------|--|
| ①행정 지원의 부족 | ②재정적인 어려움 | ③주민과의 소통,
상호교류의 부족 |
| ④주민들간의 거버넌스,
공동체의식의 부족 | ⑤활동가 간의 정보공유,
교류 부족 | ⑥스스로의 활동 분야에
대한 정보 및 지식
습득의 기회부족 |
| ⑦기타() | | |

4. 현재 활동을 진행하는 것과 별개로 생업을 위한 경제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네” 인 경우 어떤 직업에 종사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1. 네 ()
2. 아니오

Ⅲ. 정책 및 제도 관련 활동

5. 이전에 인천광역시 및 군구의 도시재생, 마을관련 정책 및 제도에 수반하여 마을활동을 진행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신 경우 해당 정책 및 제도를 알려주세요.

◆인천광역시 도시재생, 마을관련 정책 및 제도 수반: 인천광역시에서 도시재생을 위해 추진해 온 사업 또는 프로그램

예시) 마을만들기/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도시재생대학, 저층주거지관리사업, 도시기본계획 시민계획단,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 협동조합 육성사업, 지역공동체 문화 만들기 사업(인천 문화재단) 등

1. 네 ()
2. 아니오

※“네” 일 경우 5-1부터 5-3까지, “아니오” 이신 경우 5-4와 5-5를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칸은 인천광역시의 관련정책 및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경험이 있으신 분만 답해주세요>

5-1. 활동하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총 참여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세요.

- ①3개월 미만 ②3~6개월 ③6개월~1년
④1년~2년 ⑤2년이상 ⑥기타 ()

5-2. 활동하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어떠한 형태로 참여하셨는지 알려주세요. (중복응답 가능)

- ①도시대학 등 관련교육에 수강생으로 참여 ②도시대학 등 관련교육에 강사로 참여 ③일반 주민의 공동체, 사회적 경제 활동에 자문 및 협력

④주민간 소통 및 네트워크 증진을 위해 참여 ⑤벽화, 마을지도 등 전문 영역의 재능 및 아이디어 제공 ⑥관련 계획, 정책 등에 심의, 자문

⑦기타 ()

5-3. 활동하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가장 크게 느끼셨던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중복응답가능)

- ①행정 지원의 부족 ②재정적인 어려움 ③주민과 활동가 간의
소통, 상호교류의 부족

④주민들 간의 거버넌스, ⑤활동가와 활동가 사이의 ⑥스스로의 활동 분야에
공동체의식이 부족 정보공유, 교류의 부족 대한 정보 및 지식
습득의 기회부족

⑦기타 ()

<아래 칸은 인천광역시의 관련정책 및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경험이 없으신 분만 답해주세요>

5-4. 활동하신 경험이 없으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①관련 정책에 관한 홍보 부족 ②주 생활을 위한 경제활동과 겹쳐서 ③현재 하고 있는 마을활동으로 충분해서

④주민과의 소통 및 네트워크의 어려움이 크게 느껴져서 ⑤지자체 부서와의 소통 및 네트워크의 어려움이 크게 느껴져서 ⑥공공의 정책 및 프로그램에 관한 참여 의사가 적음

⑦기타 ()

5-5. 향후 인천광역시의 도시재생 및 마을활동 관련 정책과 프로그램에 마을활동가로서 참여하여 활동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유도 함께 알려주세요.

1. 네 ()
2. 아니오 ()

IV. 공공지원에 관련된 사항

6. 이전에 공공 및 민간에서 마을활동가로서 지원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실 경우 주관 기관 및 지원 형태를 알려주세요. (중복응답가능)

◆공공지원: 중앙정부, 정부부처 또는 소속 기관에서 운용 중에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

예시) 살기 좋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 도시대학, 지역공동체 문화만들기 사업, 농촌문화 공동체 사업, 지역공예마을육성사업, 문화디자인 프로젝트 컨설팅,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골목 공동체사업, 마을기업 육성사업, 야시장사업 등

◆민간지원: 일반 기업, 민간재단, 비정부기구, 비영리단체, 교육기관 등 공공이 아닌 주체의 지원

1. 네

지원주체	
①중앙정부 지원정책 및 제도	②중앙정부 부처 소속 공공기관의 지원 정책 및 제도
③인천광역시 지원정책 및 제도	④인천광역시 소속 공공기관의 지원정책 및 제도
⑤인천광역시 외 지자체 및 지자체 소속 공공기관의 지원정책 및 제도	⑥재단, 사기업 등 민간주체의 지원
⑦기타()	

지원형태			
①행정지원	②예산지원	③교육지원	④교류, 홍보지원
⑤기타()			

2. 아니오

7. 정부, 지자체 등 공공의 재원 및 제도를 통해 마을활동가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어떠한 분야의 지원이 필요할지 중요한 순서대로 3순위까지 말씀해주세요.

(관련 있는 항목 3가지만 1.2.3으로 응답해주세요. 1:가장 관련이 깊음 2: 두 번째로 관련이 깊음 3: 세 번째로 관련이 깊음 순서입니다.)

1. 네

문항	관련도 순 (1~3까지 체크)
행정 지원	
예산 지원	
교육 지원	
교류, 네트워크 지원	
홍보 관련 지원	
기타()	

2. 아니오

8. 공공에서 향후 마을활동가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도 함께 말씀해 주세요.

마을활동가를 위한 지원체계: 공공이 도시재생과 관련된 정책 또는 프로그램을 실시함에 있어 주민의 참여 활성화와 이해 증진, 교류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활동가의 육성, 활동 지원, 파트너십 형성, 교육 및 검정(인증) 등을 추진하는 제도 및 체계

ex) 서울특별시 마을활동가 제도, 지자체가 추진하는 마을활동가 워크숍/교육프로그램 등

1. 네()
2. 아니오()

9. 공공에서 향후 마을활동가의 활동을 보장하는 인증제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도 함께 말씀해 주세요.

마을활동가를 위한 인증제도: 공공이 도시재생과 관련된 정책 또는 프로그램을 실시함에 있어 주민의 참여 활성화와 이해 증진, 교류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활동가의 육성, 활동 지원, 파트너십 형성, 교육 및 검정(인증) 등을 추진하는 제도 및 체계

ex) 일본 기후현 커뮤니티 진단사 제도, 대만 마을계획사 검정제도 등

1. 네()
2. 아니오()

10. 향후 인천광역시에서 마을활동가를 위한 인증제도 및 지원체계 등의 구축에 관련된 정책을 추진할 경우, 참여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지원주체	
①지원체계 구축시 참여할 의사가 있음	②인증제도 구축시 참여할 의사가 있음
③모두 참여할 의사가 있음	④모두 참여할 의사가 없음
⑤기타()	

11. 마을활동가로서 인천광역시 도시재생, 마을활동 관련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자유로운 의견을 기술해 주세요.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IDI연구보고서 2015-13

인천광역시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정책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기반인력 양성 방안

발 행 인 남 기 명

발 행 일 2015년 12월

발 행 처 인천발전연구원

22711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98

TEL 032) 260-2600

FAX 032) 260-2629

<http://www.idi.re.kr>

© 인천발전연구원 2015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인천발전연구원의 공식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